

# 2014년 폭력에 대한 의식조사 결과\*

## - 대구지역 청소년을 중심으로

김 태 은\*\*

### I. 들어가며

청소년의 자살 등으로 이어진 학교폭력은 우리 사회에 커다란 충격을 주었다. 그 충격의 핵심에 대구경북지역이 있었고, 이후 현재의 교육부와 교육청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하여 여러 전문가들과 함께 다양한 해결책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정부와 교육청의 대안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표명하였다. 일부 대안들은 학교폭력의 상황을 가해자와 피해자의 단순한 구도로 분석하여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었기 때문이다. 최근 들어 범죄피해자의 보호와 그 피해회복에 대하여 다양한 측면에서 고려되고 지원되는 현상을 보면 당시 가해자 중심의 처벌, 단순히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여 피해자를 보호하겠다는 생각이 얼마나 단순하고 직관적인 해결책이었는지를 알 수 있게 한다. 또한 여러 대안들이 간과하고 있었던 것은 삶의 연속성과 축적성이라는 것이다. 현재의 우리, 나는 한순간 이 현재의 시간과 공간에 존재하는 것이라 아니라 과거 태어난 순간부터 현재까지 여러 공간에서 여러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현재의 나로 성장 또는 변해 왔고, 앞으로도 또 다른 환경 속에서 살아가게 된다. 이러한 연속성과 축적성을 고려하지 않고 단편적으로 현재의 관점에서 현재의 공간에서만 폭력을 행사하지 않도록, 폭력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무엇인가를 해 보겠다는 시도는 때때로 무모한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물론 당장의 상황에서 폭력예방을 위한 해결책을 마련하고 실시하는 것이 무의미하다거나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니다. 단지 어떠한 해결하고 싶은 상황 또는 해결해야 하는 문제에 대하여 좀 더 인권적 관점에서, 충분한 검토를 통하여 단기적, 장기적 계

---

\* 투고일자 : 2015. 5. 10    심사일자 : 2015. 6. 10    게재확정일자 : 2015. 6. 18

\*\*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

획을 세우고 실행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싶은 것이다.

인권적 관점에서 충분한 검토를 위하여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해봐야할 것은 ‘폭력’에 대한 나, 우리, 사회의 인식수준이다. 나와 우리가 폭력을 어떻게 인지하고, 받아드리고, 어떠한 태도를 보이느냐하는 것은 앞서 이야기한 학교폭력을 포함하여 모든 폭력의 문제에 접근하는 방식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는 비폭력, 평화, 인권 친화적 학교문화 조성 위한 청소년 참여 사업의 하나로 진행된 2014년 청소년 인권연극제에 참가한 중고등학교 학생과 소수의 비청소년을 대상으로 ‘2014 폭력에 대한 의식 조사’를 실시하였다. 비록 학교폭력 예방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에는 설문 대상이나 설문의 내용이 충분하지 않지만, 폭력에 대하여 학생인 청소년과 비청소년의 인식정도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특히 이번 설문조사는 2012년 경찰청 용역과제로 한국형사정책연구소에서 실시한 ‘우리나라 폭력수준 실태 및 개선방안’<sup>1)</sup> 실태조사의 설문지를 재구성하여 사용한 것으로, 위 실태조사 결과를 함께 참고하면 더욱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설문결과를 정리하기에 앞서 ‘학교폭력’을 포함한 폭력에 대한 몇 가지 의문점을 공유하고자 한다.

- 폭력의 내용을 어디까지로 정의할 것인가?
- 우리(우리 사회)는 폭력에 대하여 어떠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가?
- 학교폭력을 학생 사이 폭력으로 한정하여 논의하는 것은 적절한가?
- 학교라는 공간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당사자 사이의 폭력문제는 어떻게 다루어져야 하는가?
  - \* 학교관리자와 피관리자(상사와 부하), 교사 사이, 교사와 교육행정직원 사이, 학교 내 정규직과 비정규직원 사이, 교사 등 직원과 학생 사이, 학생 사이, 교사 등 직원과 학생 보호자(학부모 등) 사이
- 학교라는 공간에서의 폭력문제와 우리 사회 전체(가정, 직장, 학교, 군내, 개인적 공동체, 그 밖의 모든 생활공간 등) 공간의 폭력문제와의 연관성, 유사성과 차이성은 무엇인가?
- 학교라는 공간에서의 폭력은 완전히 사라질 수 있는가?

1) 한국형사정책연구소, 연성진, 오전한, 2012 경찰청 용역과제, ‘우리나라 폭력수준 실태 및 개선 방안’, 2012.

## II. 설문결과

### 1. 설문조사방법 및 조사대상자

#### 1) 설문조사 방법

(1) 조사대상: 2014 청소년 인권연극제에 참가한 대구지역 중·고등학교 교사 및 학생 1,136명과 학생인권관련 거리 캠페인 등 대구인권사무소 추진사업에 참가한 청소년 또는 비청소년 등 8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2) 조사기간: 설문조사는 2014년 11월 3일부터 12월 8일까지 약 한 달간 진행하였다.

(3) 이번 설문에 활용한 설문지는 2012년 경찰청 용역과제로 한국형사정책연구소에서 실시한 ‘우리나라 폭력수준 실태 및 개선방안’ 실태조사의 설문지를 용역과제 연구책임자였던 연구위원의 동의를 얻어 전체항목 중 폭력경험의 후유증, 음주관련 항목 등을 제외한 후 재구성하여 사용하였다.

#### 2) 조사대상자 특성

##### (1) 연령, 학력, 성별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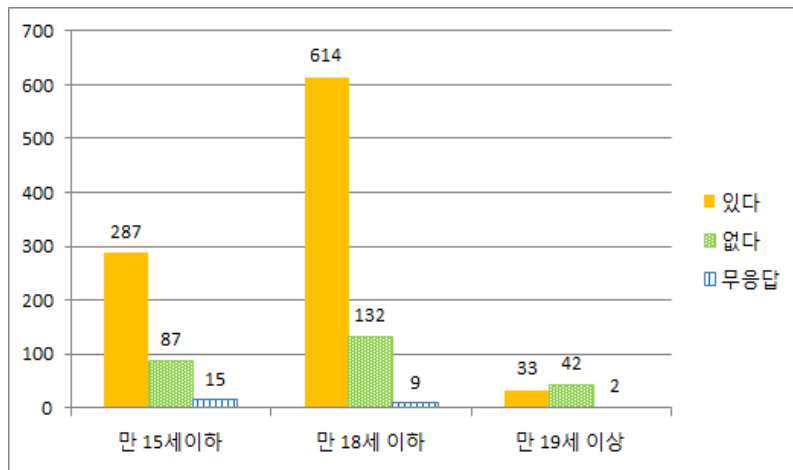
<표 1> 설문대상자 현황

구분		중학교 재학 (만15세 이하)		고등학교 재학 (만18세 이하)		(만19세 이상)		계	
연극제 참가학교		374 (32.9%)		736 (64.8%)		26 (2.3%)		1,136	
그 외 (거리 캠페인 참가자 등)		15 (17.6%)		19 (22.4%)		51 (60.0%)		85	
남자	여자	201 (51.7%)	179 (46.0%)	198 (26.2%)	547 (72.5%)	26 (33.8%)	49 (63.6%)	425 (34.8%)	775 (63.5%)
무응답		9(2.3%)		10(1.3%)		2(2.6%)		21(1.7%)	
계		389(31.9%)		755(61.8%)		77(6.3%)		1,221	

## (2) 폭력에 대한 이해교육 경험 및 개념이해에 대한 개인적 판단

&lt;표 2&gt; 폭력에 대한 교육경험 및 폭력의 개념 이해

구분	만 15세 이하 (중학교 재학)	만 18세 이하 (고등학교 재학)	만 19세 이상
<b>폭력이해 교육 경험</b>			
있다	287 (73.8%)	614 (81.3%)	33 (42.9%)
없다	87 (22.4%)	132 (17.5%)	42 (54.5%)
무응답	15 (3.9%)	9 (1.2%)	2 (2.6%)
<b>폭력의 개념</b>			
알고 있다	373 (95.9 %)	742 (98.3%)	71 (92.2%)
모른다	4 (1.0%)	5 (0.7%)	4 (5.2%)
무응답	12 (3.1%)	8 (1.1%)	2 (2.6%)



&lt;그림 1&gt; 폭력에 대하여 교육경험 여부

폭력과 관련한 교육을 받은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만18세 이하 응답자의 경우 교육경험이 있다는 대답이 평균 77.6%로 교육을 받지 못했다는 대답 20.0%에 비해 약 4배정도 높았으나 만19세 이상의 경우 교육을 받지 못했다는 대답이 약 1.3배 높았다. 그리고 폭력과 관련한 교육의 경험과 폭력의 개념에 대한 이해정도는 비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교육의 경험이 있고 폭력의 개념을 알고 있음. 다수 응답자 순: 만18세 이하, 만15세 이하, 만19세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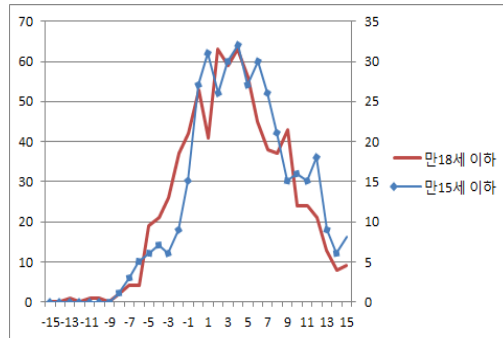
그러나 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는 대답이 54.5%였던 만19세 이상 응답자들도 폭력의 개념에 대하여서는 92.2%가 알고 있다고 답하였고, 세 집단 모두 90%이상 폭력의 개념을 스스로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겠으나 교육 경험에 비하여 폭력의 개념을 알고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게도 우리가 폭력이라는 말이나 폭력적이라고 평가되는 상황에 상당히 노출되어 있어 추상적으로 폭력의 개념을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스스로 오해하고 있다는 추측을 가능하게 한다. 또한 물리적 폭력 등 즉각적이고 자극적인 폭력은 폭력이라고 쉽게 인식하고 받아드리고 있으나 물리적 폭력 외의 정서적 폭력 등에 대하여서는 상대적으로 그 개념을 알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해석될 수도 있다.

## 2. 설문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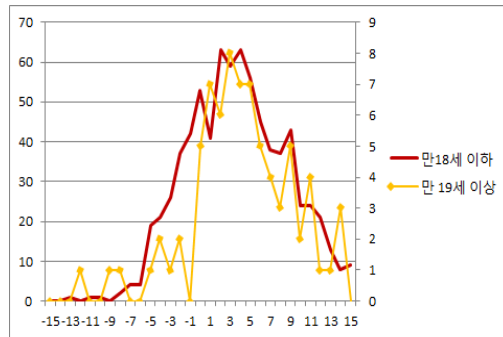
### 1) 자존감에 대한 설문

<표 3> 자존감 항목별 합계(부정-, 긍정+)

구분	만15세 이하 (중학교)		만18세 이하 (고등학교)		만19세 이상		구분	만15세 이하 (중학교)		만18세 이하 (고등학교)		만19세 이상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389	100.0	755	100.0	77	100.0							
-15							1	31	8.0	41	5.4	7	9.1
-14							2	26	6.7	63	8.3	6	7.8
-13			1	0.1			3	30	7.7	59	7.8	8	10.4
-12			0	0.0	1	1.3	4	32	8.2	63	8.3	7	9.1
-11			1	0.1	0	0.0	5	27	6.9	56	7.4	7	9.1
-10			1	0.1	0	0.0	6	30	7.7	45	6.0	5	6.5
-9			0	0.0	1	1.3	7	26	6.9	38	5.0	4	5.2
-8	1	0.3	2	0.3	1	1.3	8	21	5.4	37	4.9	3	3.9
-7	3	0.8	4	0.5	0	0.0	9	15	3.9	43	5.7	5	6.5
-6	5	1.3	4	0.5	0	0.0	10	16	4.1	24	3.2	2	2.6
-5	6	1.5	19	2.5	1	1.3	11	15	3.9	24	3.2	4	5.2
-4	7	1.8	21	2.8	2	2.6	12	18	4.6	21	2.8	1	1.3
-3	6	1.5	26	3.4	1	1.3	13	9	2.3	13	1.7	1	1.3
-2	9	2.3	37	4.9	2	2.6	14	6	1.5	8	1.1	3	3.9
-1	15	3.9	42	5.6	0	0.0	15	8	2.1	9	1.2		
0	27	6.9	53	7.0	5	6.5	평균	4.6		3.7		4.1	



<그림 2> 자존감 분포비교(만15세 이하, 만18세 이하)



<그림 3> 자존감 분포비교(만18세 이하, 만19세 이상)

자존감과 관련한 설문 항목은 모두 10개로 긍정적인 질문 5개, 부정적인 질문 5개, 각 항목에 대한 답변은 4개(전혀 그렇지 않다(1), 그렇지 않은 편이다(2), 그런 편이다(3), 매우 그렇다(4)) 중 1개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었다. 설문결과는 긍정적인 질문에 대한 대답의 경우 최대 +4점에서 +1점으로, 부정적인 질문에 대한 대답의 경우 최대 -4점에서 -1점으로 점수를 부여하여, 최대 +15(긍정적인 질문에 대하여 최대 긍정으로 대답한 경우 5개 질문×(+4점)으로 계산하여 최대 +20점, 부정적인 질문에 대하여 최소 부정으로 대답한 경우 5개 질문×(-1)점으로 계산하여 최소 -5점, 이렇게 산출된 두 점수를 합하면 최대 +15점이 최고 점수임)에서 최소 -15점(긍정질문에 최소 긍정, 부정질문에 최대 부정의 경우,  $(5 \times +1) + (5 \times -4) = -15$ )으로 계산하여 응답자별 10개 항목에 대한 1개의 값을 산출, 그 분포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정리하였다.(자존감 +15점 ↔ -15점)

만15세 이하 응답자의 자존감 평균은 4.6으로 만19세 이상 4.1, 만18세 이하 3.7에 비하여 가장 높았다. ‘-(마이너스)’응답자는 만18세 이하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2) 1세대(부부) 또는 2세대(부모자녀) 가족사이 폭력에 대한 인식

(1) 부부사이, 부모 자녀사이 폭력행위에 대한 느낌이나 생각

<표 4> 부부사이 구타 또는 손으로 때리는 것

구분	만15세 이하		만18세 이하		만19세 이상		누적%
	빈도	%	빈도	%	빈도	%	
필요하다(1) - 불필요하다(7)							
0	21	5.4	29	3.8	9	4.9	-
1	1	0.3	3	0.4	0	0.0	0.3
2	0	0.0	3	0.4	0	0.0	0.3
3	2	0.5	6	0.8	1	1.3	0.8
4	10	2.6	18	2.4	1	1.3	2.5
5	12	3.1	18	2.4	2	2.6	2.7
6	42	10.8	83	11.0	5	6.5	11.2
7	301	77.4	595	78.8	59	76.6	82.2
상식적이다(1) - 비상식적이다(7)							
0	21	5.4	30	3.9	8	10.4	-
1	28	7.2	34	4.5	5	6.5	5.8
2	9	2.3	8	1.1	1	1.3	1.5
3	4	1.0	4	0.5	0	0.0	0.7
4	17	4.4	25	3.3	1	1.3	3.7
5	6	1.5	29	3.8	2	2.6	3.2
6	31	8.0	65	8.6	6	7.8	8.8
7	273	70.2	560	74.2	54	70.1	76.3
좋다(1) - 나쁘다(7)							
0	20	5.1	31	4.1	7	9.1	-
1	0	0.0	1	0.1	0	0.0	0.1
2	0	0.0	1	0.1	0	0.0	0.1
3	2	0.5	1	0.1	1	1.3	0.3
4	6	1.5	23	3.0	3	3.9	2.8
5	12	3.1	21	2.8	0	0.0	2.8
6	35	9.0	66	8.7	4	5.2	9.0
7	314	80.7	611	80.9	62	80.5	8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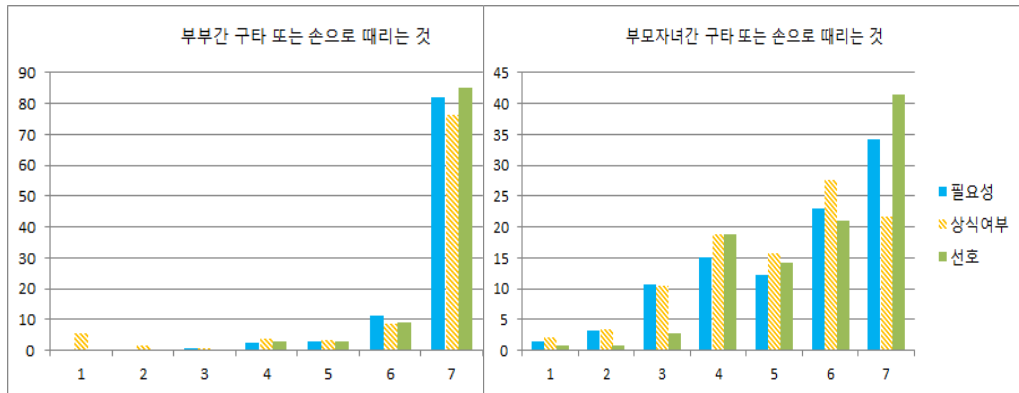
※ 각 문항에 대한 답변은 필요성, 상식부합여부, 선호도에 대하여 긍정과 부정의 정도를 7단계로 나누어 답변

&lt;표 5&gt; 부모 자녀사이 구타 또는 손으로 때리는 것

구분	만15세 이하		만18세 이하		만19세 이상		누적%
	빈도	%	빈도	%	빈도	%	
필요하다(1) - 불필요하다(7)							
0	15	3.9	32	4.2	7	9.1	-
1	3	0.8	13	1.7	1	1.3	1.5
2	5	1.3	28	3.7	3	3.9	3.1
3	19	4.9	102	13.5	3	3.9	10.6
4	54	13.9	114	15.1	8	10.4	15.1
5	45	11.6	94	12.5	8	10.4	12.3
6	87	22.4	160	21.2	21	27.3	23.0
7	161	41.4	211	27.9	26	33.8	34.1
상식적이다(1) - 비상식적이다(7)							
0	14	3.6	34	4.5	7	9.1	-
1	9	2.3	15	2.0	2	2.6	2.2
2	19	4.9	18	2.4	2	2.6	3.4
3	69	17.7	52	6.9	2	2.6	10.6
4	35	9.0	173	22.9	11	14.3	18.9
5	67	17.2	107	14.2	8	10.4	15.7
6	156	40.1	148	19.6	16	20.8	27.6
7	14	3.6	208	27.5	29	37.7	21.6
좋다(1) - 나쁘다(7)							
0	15	3.9	34	4.5	9	11.7	-
1	2	0.5	6	0.8	0	0.0	0.7
2	3	0.8	7	0.9	1	1.3	0.9
3	6	1.5	24	3.2	2	2.6	2.8
4	54	13.9	157	20.8	9	11.7	18.9
5	48	12.3	112	14.8	5	6.5	14.2
6	59	15.2	163	21.6	22	28.6	21.0
7	202	51.9	252	33.4	29	37.7	41.5

※ 각 문항에 대한 답변은 필요성, 상식부합여부, 선호도에 대하여 긍정과 부정의 정도를 7단계로 나누어 답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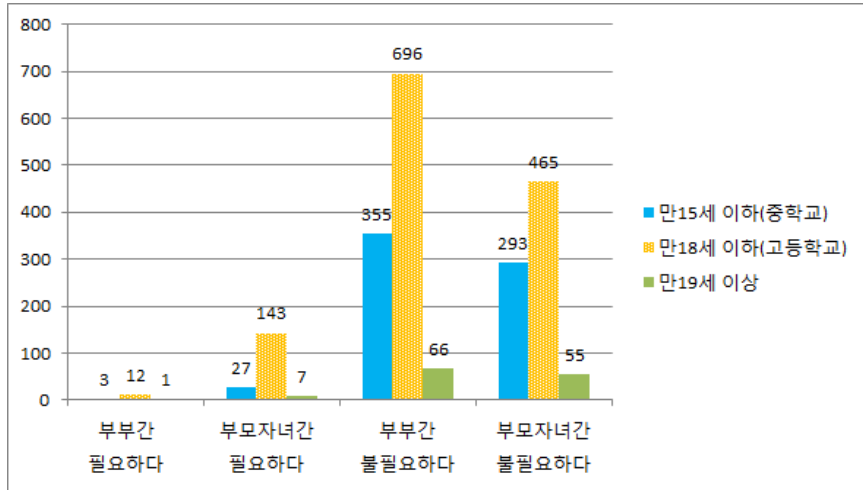
<그림 4> 부부사이, 부모 자녀사이 폭력행위 대한 생각이나 느낌

부부사이의 폭력에 대해서는 매우 부정적이라는 답변이 70%이상 나왔으나 부모 자녀 사이의 폭력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45%이하로 나타났다. 예전과 달리 부부 사이의 평등에 대한 인식은 높아졌으나 부모 등 보호자와 자녀의 관계는 아직 인식의 변화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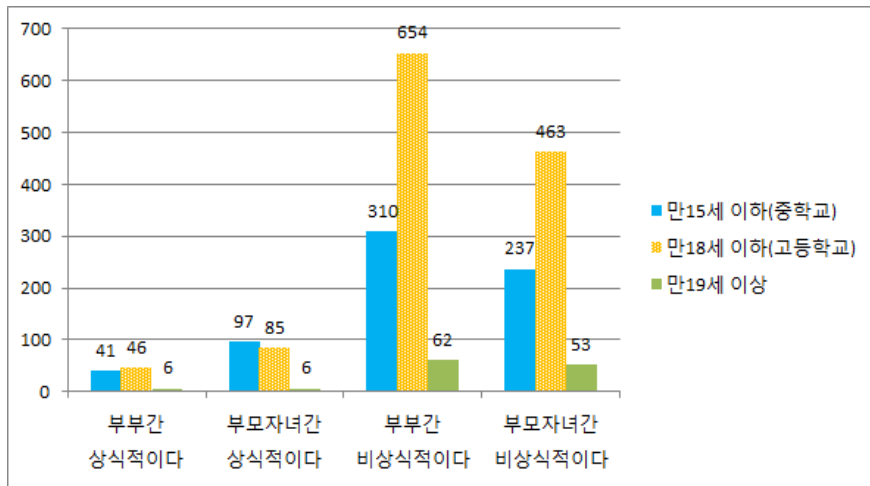
(2) 위 답변 중 무응답, 선택지 4번을 제외하고, 1~3번은 긍정(필요하다, 상식적이다, 좋다), 5~7번은 부정(불필요하다, 비상식적이다, 나쁘다)으로 구분하여 정리

<표 6> 부부사이, 부모 자녀사이 폭력에 대한 느낌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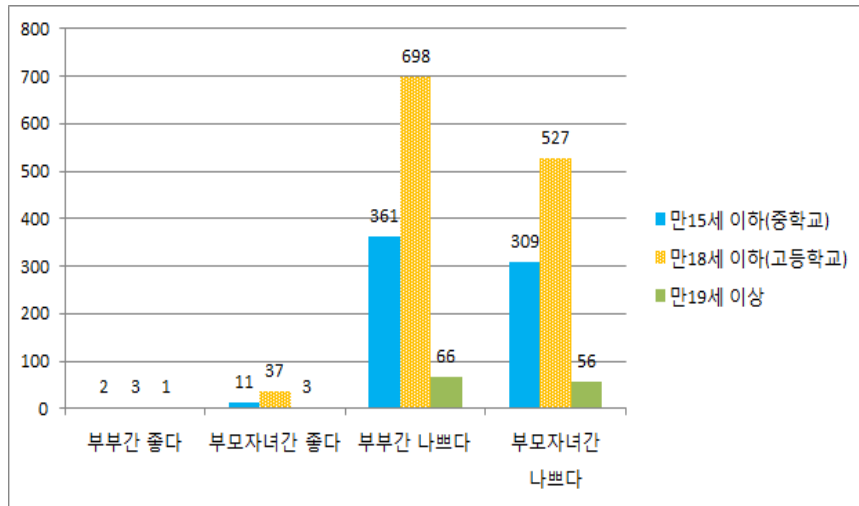
구분		만15세 이하		만18세 이하		만19세 이상	
		빈도	%	빈도	%	빈도	%
부부	필요 1~3	3	0.8	12	1.6	1	1.3
	필요 5~7	355	91.3	696	92.2	66	85.7
부모 자녀	필요 1~3	27	7.0	143	18.9	7	9.1
	필요 5~7	293	75.4	465	61.6	55	71.4
부부	상식 1~3	41	10.5	46	6.1	6	7.8
	상식 5~7	310	79.7	654	86.6	62	80.5
부모 자녀	상식 1~3	97	24.9	85	11.3	6	7.8
	상식 5~7	237	60.9	463	61.3	53	68.8
부부	선호 1~3	11	2.8	37	4.9	3	3.9
	선호 5~7	309	79.4	527	69.8	56.0	72.7
부모 자녀	선호 1~3	11	2.8	37	4.9	3	3.9
	선호 5~7	309	79.4	527	69.8	56.0	72.7



<그림 5> 부부사이, 부모 자녀사이 구타 또는 손으로 때리는 행위의 필요성



<그림 6> 부부사이, 부모 자녀사이 구타 또는 손으로 때리는 행위의 상식여부



<그림 7> 부부사이, 부모 자녀사이 구타 또는 손으로 때리는 행위의 선호도

부부사이 폭력의 필요성, 상식여부, 선호도와 관련된 질문에서 유일하게 긍정적인 대답이 10%이상인 항목은 만15세 이하의 ‘상식적이다’는 문항(10.5%)이었다. 이에 반하여 부모 자녀사이 폭력 행위에 대하여 긍정적인 대답이 10%이상인 것은 만18세 이하 ‘필요하다’(18.9%), 만14세 이하 ‘상식적이다’(24.9%), 만18세 이하 ‘상식적이다’(11.3%) 등 3개 항목이나 되었으며, 그 외 모든 집단에서 선호도를 제외한 필요성, 상식여부 질문에서 7%이상 긍정적이라고 답하였다. 이는 부부사이 폭력의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서 긍정적이라고 대답한 응답자수가 모든 집단에서 2%미만으로 나온 것과는 매우 대조적이라고 할 수 있다.

부모 자녀사이에 폭력행위는 필요하다고 답한 응답자는 만18세 이하 18.9%, 만19세 이상 9.1%, 만15세 이하 7.0% 순으로 만18세 이하 집단이 만19세 이상 집단보다 2배 이상 높게 나왔으며, 상식적이라는 대답은 만15세 이하 24.9%, 만18세 이하 11.3%, 만19세 이상 7.8%로 만15세 이하 집단의 경우 만18세 이하 집단보다 약 2.2배, 만19세 이상 집단보다 3.2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비청소년보다 청소년 스스로가 부모 등 보호자가 청소년에게 가하는 폭력은 필요한 것이고, 상식적이라고 생각한다는 이 결과를 비청소년들은 과연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드려야 할까? 가정과 학교의 교육이 ‘맞아도 될 사람’이라는 차별적 구분을 허용하고, 문제해결의 수단 또는 처벌의 방식으로 폭력을 사용해도 된다는 인식을 심어주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진지하게 생각해봐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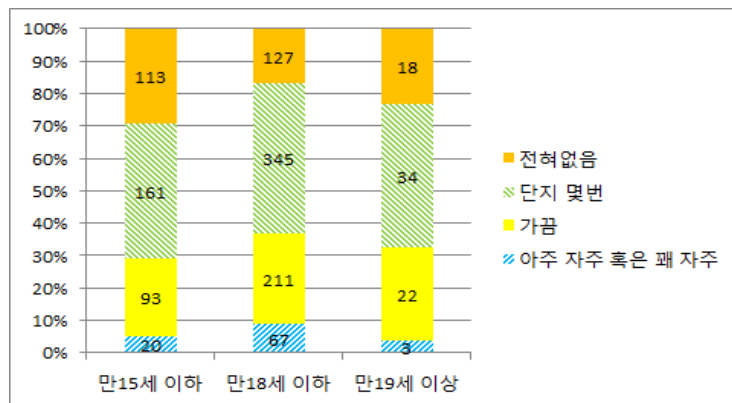
## 3) 폭력 경험

## (1) 내가 부모 또는 다른 사람에게 폭력을 당한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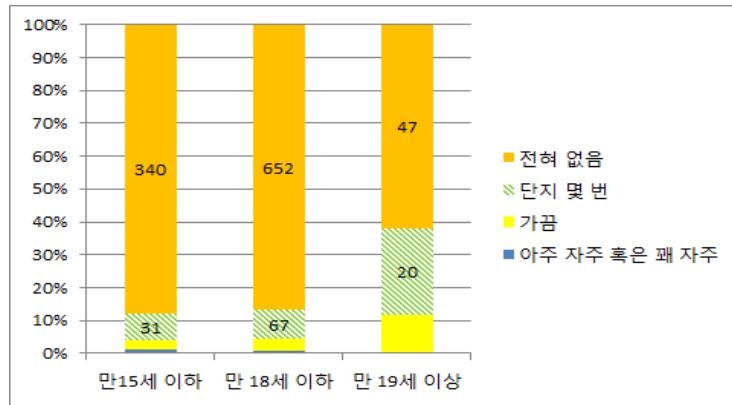
## 가. 부모나 친척에게 맞은 경험

〈표 7〉 부모나 친척에게 맞은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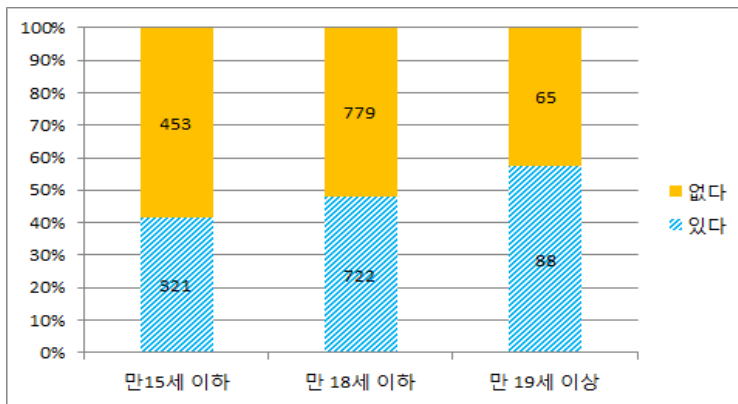
구분	만15세 이하		만18세 이하		만19세 이상	
	빈도	%	빈도	%	빈도	%
합계	389	100.0	755	100.0	77	100.0
<b>잘못 한 일 때문에 부모나 친척에게 맞은 경험</b>						
아주 자주 혹은 꽤 자주	20	5.1	67	8.9	3	3.9
가끔	93	23.9	211	27.9	22	28.6
단지 몇 번	161	41.4	345	45.7	34	44.2
전혀 없음	113	29.0	127	16.7	18	23.4
무응답	2	0.5	4	0.5	0	0.0
<b>뚜렷한 이유 없이 부모나 친척에게 맞은 경험</b>						
아주 자주 혹은 꽤 자주	4	1.0	6	0.8	0	0.0
가끔	12	3.1	26	3.4	9	11.7
단지 몇 번	31	8.0	67	8.9	20	26.0
전혀 없음	340	87.4	652	86.4	47	61.0
무응답	2	0.5	4	0.5	1	1.3



〈그림 8〉 잘못된 일 때문에 부모나 친척에게 맞은 경험



<그림 9> 뚜렷한 이유 없이 부모나 친척에게 맞은 경험



※범례: '있다' 는 '전혀 없음',  
'무응답'을 제외한 모든 값의 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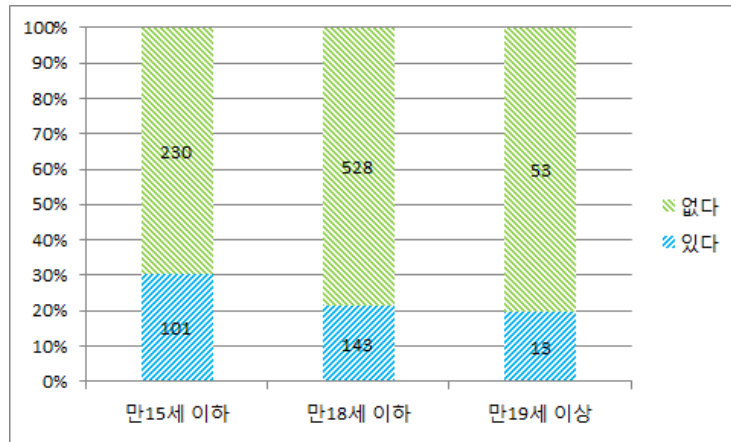
<그림 10> 부모나 친척에게 맞은 경험(잘못해서, 뚜렷한 이유 없이)

만15세 이하, 만18세 이하, 만19세 이상 모두 잘못된 일로 부모에게 맞은 경험은 70% 이상, 뚜렷한 이유 없이 맞은 경험은 만15세 이하 12.1%, 만18세 이하 13.1%, 만19세 이상 37.7%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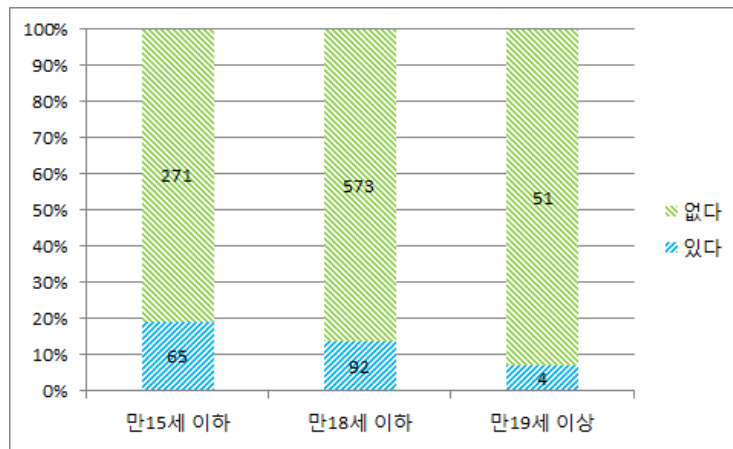
나. 다른 사람에게 폭행을 당한 경험

&lt;표 12&gt; 다른 사람에게 폭행을 당한 경험

구분	만15세 이하		만18세 이하		만19세 이상		계 %
	빈도	%	빈도	%	빈도	%	
다른 사람이 나를 세차게 밀치거나 손으로 찹							
1. 매주 적어도 한번	14	3.6	28	3.7	0	0.0	3.4
2. 한 달에 2번	7	1.8	14	1.9	2	2.6	1.9
3. 한 달에 1번	12	3.1	4	0.5	2	2.6	1.5
4. 모두 3~4번	15	3.9	23	3.0	2	2.6	3.3
5. 모두 1~2번	53	13.6	74	9.8	7	9.1	11.0
있음	101	26.0	143	18.9	13	16.9	21.0
6. 없음	230	59.1	528	69.9	53	68.8	66.4
무응답	58	15.0	84	11.1	11	14.3	12.5
다른 사람이 주먹이나 어떤 물건으로 찹							
1. 매주 적어도 한번	12	3.1	12	1.6	0	0.0	2.0
2. 한 달에 2번	5	1.3	9	1.2	0	0.0	1.1
3. 한 달에 1번	5	1.3	6	0.8	2	2.6	1.1
4. 모두 3~4번	9	2.3	20	2.6	0	0.0	2.4
5. 모두 1~2번	34	8.7	45	6.0	2	2.6	6.6
있음(1~5)	65	16.7	92	12.2	4	5.2	13.2
6. 없음	271	69.7	573	75.9	51	66.2	73.3
무응답	53	13.6	90	11.9	22	28.6	13.5
다른 사람이 나를 총 또는 흉기로 위협							
1. 매주 적어도 한번	1	0.3	0	0.0	1	1.3	0.2
2. 한 달에 2번	0	0.0	0	0.0	0	0.0	0.0
3. 한 달에 1번	1	0.3	2	0.1	0	0.0	0.2
4. 모두 3~4번	0	0.0	0	0.0	0	0.0	0.0
5. 모두 1~2번	4	1.0	7	0.9	0	0.0	0.9
있음(1~5)	6	1.5	8	1.1	1	1.3	1.2
6. 없음	310	79.7	653	86.5	58	75.3	83.6
무응답	73	18.8	94	12.5	18	23.4	1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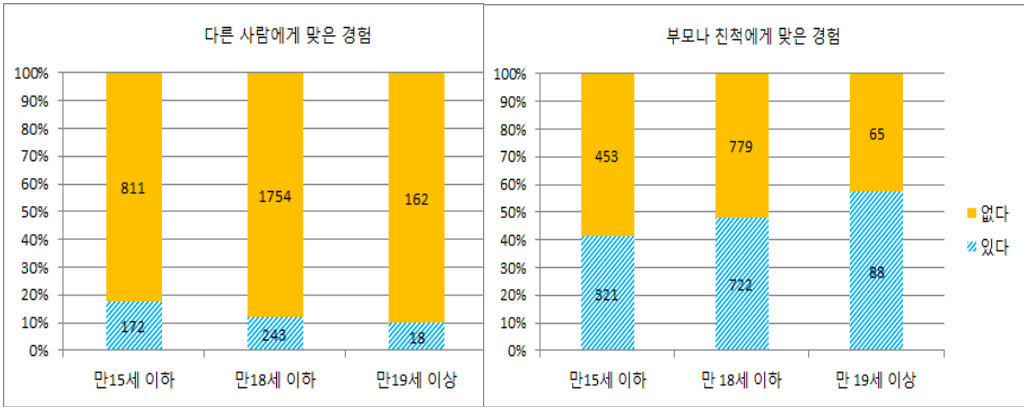


<그림 20> 다른 사람이 나를 세차게 밀치거나 손으로 침



<그림 21> 다른 사람이 나를 주먹이나 물건으로 침

다른 사람에게 맞은 경험은 만15세 이하, 만18세 이하, 만19세 이상 순으로, 만15세 이하의 경우 세차게 밀치거나 손을 침, 주먹이나 물건으로 침, 총 또는 흉기로 위협 등 모든 항목에서 폭행의 경험이 가장 높았다.



<그림 22> 다른 사람에게 맞은 경험과 부모나 친척에게 맞은 경험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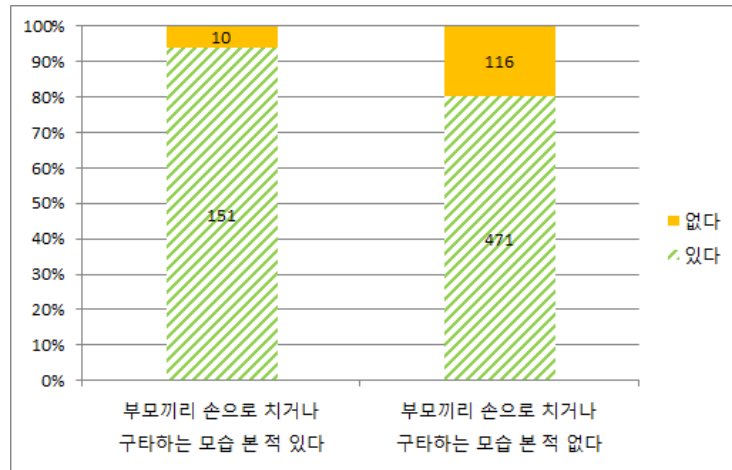
<그림 13>의 범례 ‘있다’는 선택항목 1~5번까지의 합으로 빈도의 구분 없이 경험의 유무로 구분하여 정리하였다. 가족을 포함하여 다른 사람에게 맞은 경험보다 부모나 친척에게 맞은 경험이 모든 집단에서 2배 이상 높게 나왔으며, 전반적으로 나 아닌 다른 사람에게 맞은 경험은 만15세 이하 17.5%, 만18세 이하 12.2%, 만19세 이상 10% 순으로 나타났다.

(2) 부모가 서로 치거나 구타하는 것을 본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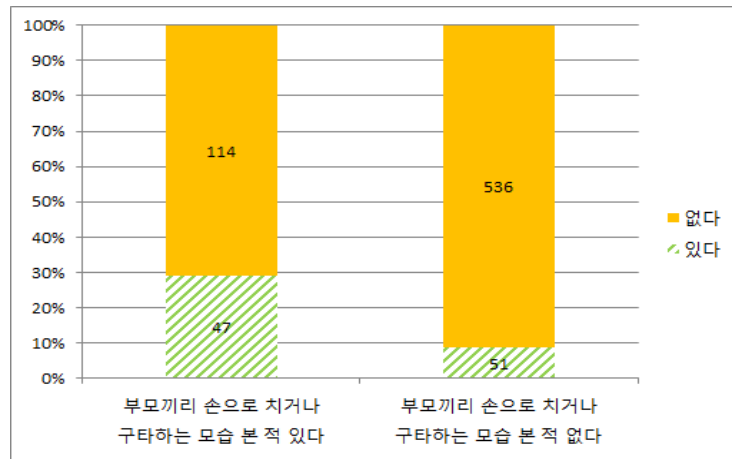
<표 13> 부모가 서로 치거나 구타하는 것을 본 경험

구분	만15세 이하		만18세 이하		만19세 이상		합계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합계	389	100.0	755	100.0	77	100.0	1221	100.0
부모가 서로 치거나 구타하는 것을 본 적이 있다								
1. 아주 자주 혹은 꽤 자주	2	0.5	10	1.3	3	3.9	72	5.9
2. 가끔	21	5.4	34	4.5	9	11.7	241	19.7
3. 단지 몇 번	49	12.6	117	15.5	23	29.9	417	34.2
있음(1~3)	72	18.5	161	21.3	35	45.5	730	59.9
4. 전혀 없음	311	79.9	587	77.8	42	54.5	480	39.3
무응답	6	1.5	7	0.9	0	0.0	10	0.8





<그림 23> 만18세 이하\_잘못한 일로 맞은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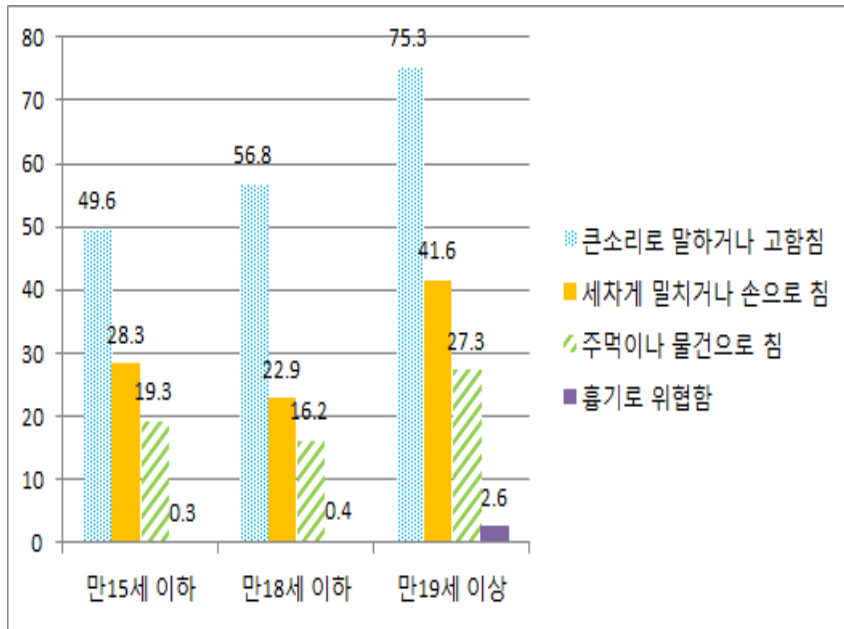
<그림 24> 만18세 이하\_잘못한 일로 맞은 경험

부모가 서로 치거나 구타하는 것을 본 경험은 만19이상이 가장 높았음. 그러나 부모가 서로 치거나 구타하는 모습을 본 경험과 부모 또는 친척으로부터 맞은 경험을 비교하여 보면 부모가 서로 치거나 구타하는 모습을 본 경험이 있다고 대답한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부모나 친척으로부터 맞은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3) 내가 다른 사람에게 폭행을 한 경험

<표 14> 대상별 폭력을 행사한 경험(만15세 이하, 만18세 이하의 경우 자녀, 배우자 항목 삭제) (\*만15세: 만15세 이하 \*만18세: 만18세 이하 \*만19세: 만19세 이상)

구분	만9세 이상		만5세	만8세	만9세	만5세	만8세	만8세	만5세	만8세	만8세
	자녀	배우자	다른 가족이나 친척			알고 있는 사람		낯선 사람			
큰소리로 말하거나 고향을 지름											
매주 1회 이상 %	6	1	18	31	3	13	28	2	2	1	2
	7.8	1.3	4.6	4.1	3.9	3.3	3.7	2.6	0.5	0.1	2.6
한 달에 2번 %	4	5	9	36	0	14	33	0	0	0	1
	5.2	6.5	2.3	4.8	0.0	3.6	4.4	0.0	0.0	0.0	1.3
한 달에 1번 %	2	3	10	43	0	14	28	1	2	0	2
	2.6	3.9	2.6	5.7	0.0	3.6	3.7	1.3	0.5	0.0	2.6
모두 3~4번 %	7	11	11	41	3	18	42	6	0	2	1
	9.1	14.3	2.8	5.4	3.9	4.6	5.6	7.8	0.0	0.3	1.3
1~2번 %	6	7	23	89	9	75	144	14	10	19	7
	7.8	9.1	5.9	11.8	11.7	19.3	19.1	18.2	2.6	2.5	9.1
없었음 %	12	12	255	424	43	202	403	39	258	574	42
	15.6	15.6	65.6	56.2	55.8	51.9	53.4	50.6	66.3	76.0	54.5
해당사항 없음 또는 무응답 %	40	38	63	81	19	53	77	15	117	159	22
	51.9	49.4	16.2	10.7	24.7	13.6	10.2	19.5	30.3	21.1	28.6
떠밀거나 세차게 밀침											
매주 1회 이상 %	1	1	2	5	0	12	19	1	0	0	0
	1.3	1.3	0.5	0.7	0.0	3.1	2.5	1.3	0.0	0.0	0.0
한 달에 2번 %	2	1	2	4	0	4	7	0	1	0	0
	2.6	1.3	0.5	0.5	0.0	1.0	0.9	0.0	0.3	0.0	0.0
한 달에 1번 %	1	1	0	6	0	8	6	0	0	1	1
	1.3	1.3	0.0	0.8	0.0	2.1	0.8	0.0	0.0	0.1	1.3
모두 3~4번 %	1	0	1	12	0	10	15	0	0	1	2
	1.3	0.0	0.3	1.6	0.0	2.6	2.0	0.0	0.0	0.1	2.6
1~2번 %	7	0	19	34	0	45	46	3	3	4	3
	9.1	0.0	4.9	4.5	0.0	11.6	6.1	3.9	0.8	0.5	3.9
없었음 %	25	36	305	590	56	259	574	34	279	602	50
	32.5	46.8	78.4	78.1	72.7	66.6	76.0	44.2	71.7	79.7	64.9
해당사항 없음 또는 무응답 %	40	38	60	104	21	51	88	38	106	147	21
	51.9	49.4	15.4	13.8	27.3	13.1	11.7	49.4	27.2	19.5	27.3
주먹이나 어떤 물건으로 치											
매주 1회 이상 %	1	1	1	1	1	6	12	1	0	0	1
	1.3	1.3	0.3	0.1	1.3	1.5	1.6	1.3	0.0	0.0	1.3
한 달에 2번 %	0	1	2	1	0	3	1	0	0	0	0
	0.0	1.3	0.5	0.1	0.0	0.8	0.1	0.0	0.0	0.0	0.0
한 달에 1번 %	0	1	1	7	0	6	7	1	0	1	1
	0.0	1.3	0.3	0.9	0.0	1.5	0.9	1.3	0.0	0.1	1.3
모두 3~4번 %	0	0	0	8	0	4	8	0	0	0	0
	0.0	0.0	0.0	1.1	0.0	1.0	1.1	0.0	0.0	0.0	0.0
1~2번 %	3	0	7	14	0	24	31	2	1	3	0
	3.9	0.0	1.8	1.9	0.0	6.2	4.1	2.6	0.3	0.4	0.0
없었음 %	34	36	309	624	55	292	608	52	281	609	53
	44.2	46.8	79.4	82.6	71.4	75.1	80.5	67.5	72.2	80.7	68.8
해당사항 없음 또는 무응답 %	39	38	69	100	21	54	88	21	107	142	22
	50.6	49.4	17.7	13.2	27.3	13.9	11.7	27.3	27.5	18.8	2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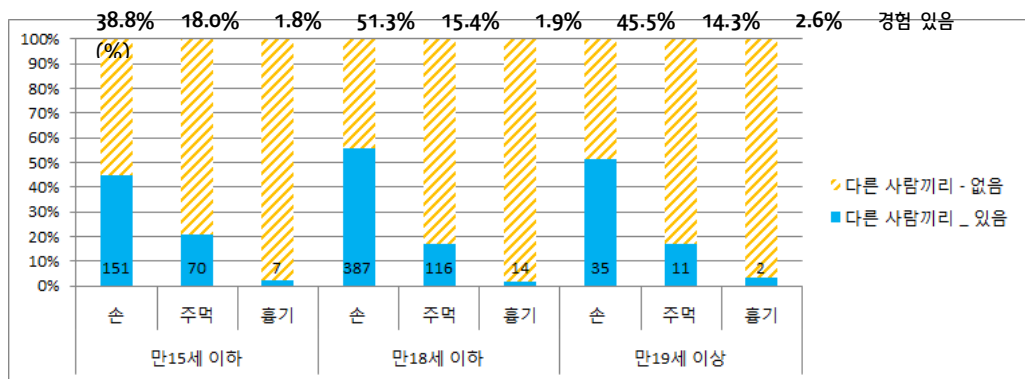
<그림 25> 다른 사람에게 폭력행위를 한 경험(%)

다른 사람에게 큰소리로 말하거나 고함을 친 경험은 모든 집단에서 다른 폭력의 유형보다 매우 높게 나왔으며 특히 만19세 이상의 경우 75.3%가 경험이 있다고 대답하였다. 세차게 밀거나 손으로 때린 경험은 만15세 이하가 28.3%로 가장 높았으나 모든 집단에서 5명 중 1명 이상이 경험이 있다고 답하였다. 주먹이나 물건으로 친 경우는 만19세 이상만이 27.3%로 20%를 넘어 가장 높았다.

#### (4) 다른 사람끼리 서로 폭행하는 모습을 본 경험

〈표 15〉 다른 사람끼리 서로 폭행하는 모습을 본 경험

구분	만15세 이하		만18세 이하		만19세 이상		계 %
	빈도	%	빈도	%	빈도	%	
다른 사람이 나를 세차게 밀치거나 손으로 찹							
1. 매주 적어도 한번	9	2.3	24	3.2	2	2.6	2.9
2. 한 달에 2번	11	2.8	16	2.1	2	2.6	2.4
3. 한 달에 1번	27	6.9	46	6.1	7	9.1	6.6
4. 모두 3~4번	32	8.2	95	12.6	7	9.1	11.0
5. 모두 1~2번	72	18.5	206	27.3	17	22.1	24.2
있음(1~5)	151	38.8	387	51.3	35	45.5	46.9
없음	184	47.3	307	40.7	33	42.9	42.9
무응답	54	13.9	61	8.1	9	11.7	10.2
다른 사람이 주먹이나 어떤 물건으로 찹							
1. 매주 적어도 한번	3	0.8	9	1.3	1	1.3	1.1
2. 한 달에 2번	4	1.0	2	0.3	1	1.3	0.6
3. 한 달에 1번	8	2.1	12	1.6	0	0.0	1.3
4. 모두 3~4번	8	2.1	15	2.0	0	0.0	1.9
5. 모두 1~2번	47	12.1	78	10.3	9	11.4	11.0
있음(1~5)	70	18.0	116	15.4	11	14.3	16.1
없음	261	67.1	556	73.6	53	68.8	71.3
무응답	58	14.9	83	11.0	13	16.9	12.6
다른 사람이 나를 총 또는 흉기로 위협							
1. 매주 적어도 한번	2	0.5	1	0.1	1	1.3	0.3
2. 한 달에 2번	0	0.0	0	0.0	0	0.0	0.0
3. 한 달에 1번	0	0.0	3	0.4	0	0.0	0.2
4. 모두 3~4번	0	0.0	2	0.3	0	0.0	0.2
5. 모두 1~2번	5	1.3	8	1.1	1	1.3	1.1
있음(1~5)	7	1.8	14	1.9	2	2.6	1.9
없음	313	80.5	645	85.4	56	72.7	83.0
무응답	69	17.8	96	12.7	19	24.7	15.1



〈그림 26〉 다른 사람끼리 폭력을 행사하는 모습을 본 경험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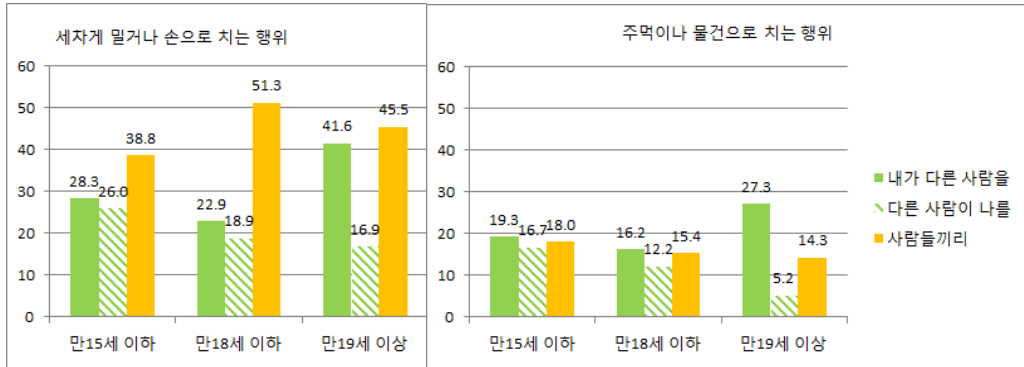
(\*손: 세차게 밀치거나 손으로 찰 \*주먹: 주먹이나 물건으로 찰 \*흉기: 총 등의 흉기로 찰)

다른 사람끼리 폭력행위를 하는 모습을 가장 많이 보았다고 진술한 집단은 만18세 이하로 나타났다. 만15세 이하 38.8%, 만18세 이하 51.3%, 만19세 이상 45.5%로 세차게 밀치거나 손으로 치는 행위는 모든 집단에서 40% 전후로 목격한 적이 있다고 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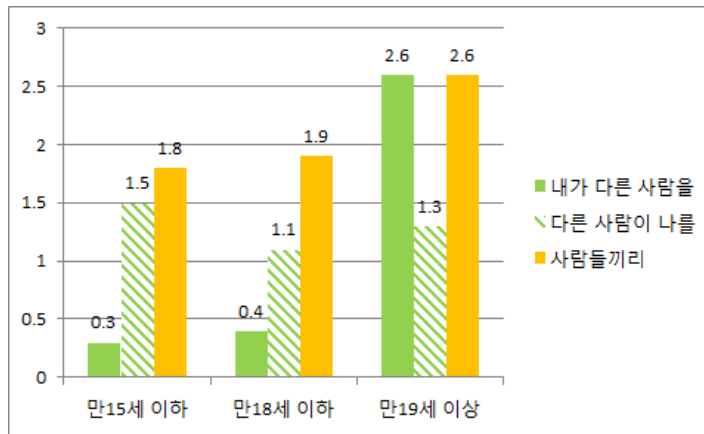
#### (5) 폭행 경험 유형별 비교

〈표 16〉 폭행 경험 유형별 비교

구분	만15세 이하		만18세 이하		만19세 이상		계 %
	빈도	%	빈도	%	빈도	%	
큰소리로 말하거나 고향을 침(A)							
내가 다른 사람에게 _ 있음	193	49.6	429	56.8	58	75.3	55.7
내가 다른 사람에게 _ 없음	196	50.4	326	43.2	19	24.7	44.3
세차게 밀치거나 손으로 침(B)							
내가 다른 사람에게 _ 있음	110	28.3	173	22.9	32	41.6	25.8
내가 다른 사람에게 _ 없음	279	71.7	582	77.1	45	58.4	74.2
다른 사람이 나를 _ 있음	101	26.0	143	18.9	13	16.9	21.0
다른 사람이 나를 _ 없음	230	59.1	528	69.9	53	68.8	66.4
다른 사람끼리 _ 있음	151	38.8	387	51.3	35	45.5	46.9
다른 사람끼리 - 없음	184	47.3	307	40.7	33	42.9	42.9
주먹이나 어떤 물건으로 침(C)							
내가 다른 사람에게 _ 있음	75	19.3	122	16.2	21	27.3	17.9
내가 다른 사람에게 _ 없음	314	80.7	633	83.8	56	72.7	82.1
다른 사람이 나를 _ 있음	65	16.7	92	12.2	4	5.2	13.2
다른 사람이 나를 _ 없음	271	69.7	573	75.9	51	66.2	73.3
다른 사람끼리 _ 있음	70	18.0	116	15.4	11	14.3	16.1
다른 사람끼리 - 없음	261	67.1	556	73.6	53	68.8	71.3
충 또는 흉기로 위협(D)							
내가 다른 사람에게 _ 있음	1	0.3	3	0.4	2	2.6	0.5
내가 다른 사람에게 _ 없음	371	95.4	732	96.9	69	89.6	96.0
다른 사람이 나를 _ 있음	6	1.5	8	1.1	1	1.3	1.2
다른 사람이 나를 _ 없음	310	79.7	653	86.5	58	75.3	83.6
다른 사람끼리 _ 있음	7	1.8	14	1.9	2	2.6	1.9
다른 사람끼리 - 없음	313	80.5	645	85.4	56	72.7	83.0



<그림 18> 세차게 밀거나 손으로 치는 행위, 주먹이나 물건으로 치는 행위에 대한 경험 비교(%)



<그림 28> 흥기로 위협하는 행위에 대한 경험(%)

폭력 경험을 가해(내가 다른 사람을), 피해(다른 사람이 나를), 간접(다른 사람들끼리)으로 구분할 때 모든 집단에서 세차게 밀거나 손으로 치는 행위(B)와 흥기로 위협하는 행위(D)는 간접경험이 가해경험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주먹이나 물건으로 치는 행위(C)는 가해경험이 간접경험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세차게 밀거나 손으로 치는 행위(B)와 주먹이나 물건으로 치는 행위(C)는 모든 집단에서 가해경험이 피해경험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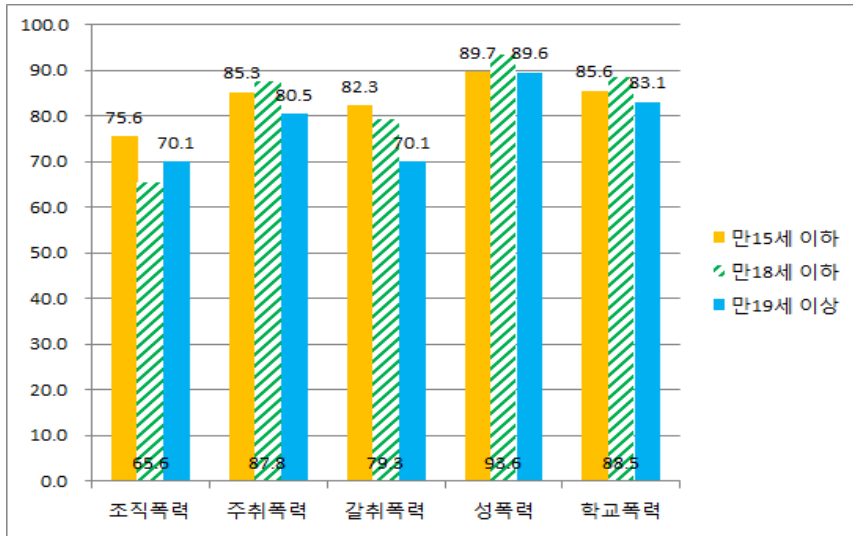
#### 4) 폭력행위의 심각성

<표 17> 폭력행위의 심각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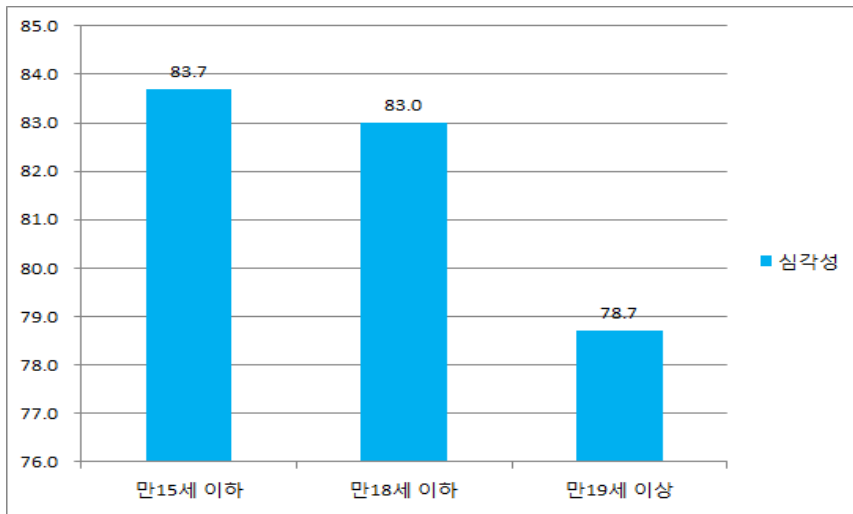
구분	만15세 이하		만18세 이하		만19세 이상		누적%
	빈도	%	빈도	%	빈도	%	
조직폭력							
전혀 심각하지 않다 1	10	2.6	10	1.3	2	2.6	1.8
2	8	2.1	24	3.2	2	2.6	2.8
3	19	4.9	43	5.7	3	3.9	5.3
보통이다 4	52	13.4	175	23.2	15	19.5	19.8
5	52	13.4	142	18.8	13	16.9	17.0
6	64	16.5	120	15.9	16	20.8	16.4
매우 심각하다 7	178	45.8	233	30.9	25	32.5	35.7
무응답	6	1.5	8	1.1	1	1.3	1.2
주취폭력(술 마시고 폭력행사)							
전혀 심각하지 않다 1	10	2.6	3	0.4	1	1.3	1.1
2	4	1.0	3	0.4	2	2.6	0.7
3	6	1.5	7	0.9	3	3.9	1.3
보통이다 4	31	8.0	71	9.4	9	11.7	9.1
5	43	11.1	140	18.5	11	14.3	15.9
6	93	23.9	201	26.6	19	24.7	25.6
매우 심각하다 7	196	50.4	322	45.6	32	41.6	45.0
무응답	6	1.5	8	1.1	0	0.0	1.1
갈취폭력(폭력을 써서 재산상 이익 취하기)							
전혀 심각하지 않다 1	6	1.5	4	0.5	1	1.3	0.9
2	4	1.0	12	1.6	3	3.9	1.6
3	13	3.3	18	2.4	5	6.5	2.9
보통이다 4	40	10.3	114	15.1	13	16.9	13.7
5	48	12.3	138	18.3	14	18.2	16.4
6	89	22.9	192	25.4	16	20.8	24.3
매우 심각하다 7	183	47.0	269	35.6	24	31.2	39.0
무응답	6	1.5	8	1.1	1	1.3	1.2
성폭력							
전혀 심각하지 않다 1	8	2.1	3	0.4	1	1.3	1.0
2	1	0.3	1	0.1	0	0.0	0.2
3	6	1.5	5	0.7	4	5.2	1.2
보통이다 4	19	4.9	31	4.1	3	3.9	4.3
5	26	6.7	55	7.3	8	10.4	7.3
6	61	15.7	147	19.5	18	23.4	18.5
매우 심각하다 7	262	67.4	505	66.9	43	55.8	66.3
무응답	6	1.5	8	1.1	0	0.0	1.1
학교폭력							
전혀 심각하지 않다 1	6	1.5	6	0.8	0	0.0	1.0
2	1	0.3	7	0.9	1	1.3	0.7
3	8	2.1	10	1.3	8	10.4	2.1
보통이다 4	35	9.0	56	7.4	4	5.2	7.8
5	31	8.0	110	14.6	13	16.9	12.6
6	79	20.3	198	26.2	22	28.6	24.5
매우 심각하다 7	223	57.3	360	47.7	29	37.7	50.1
무응답	6	1.5	8	1.1	0	0.0	1.1

모든 집단에서 가장 심각하다고 답변한 것은 성폭력으로 만15세 이하 67.4%, 만18세

이하 66.9%, 만19세 이상 66.3%로 나타났다.



<그림 29> 집단별 폭력유형에 대한 심각성 인식 정도(%)



<그림 30> 모든 폭력에 대한 심각성 평균값(%)

※ <그림 20>은 위 문항 답변 선택지에서 ‘심각한 편이다’, ‘심각하다’, ‘매우 심각하다’에 해당하는 5~7번을 선택한 응답자 수의 백분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그림 21>은 각 집단별 <그림 20>의 백분위 값의 평균값

모든 집단에서 성폭력 > 학교폭력 > 주취폭력 > 갈취폭력 > 조직폭력 순으로 심각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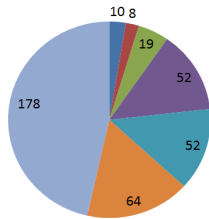


다는 의견이 많았고, 모든 폭력에 대하여 심각하다고 느끼는 정도는 만15세 이하 83.7%, 만18세 이하 83.0%, 만19세 이상 78.7%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으나 만19세 이상이 다른 집단보다 각 폭력이 심각하다고 대답한 응답자수가 가장 적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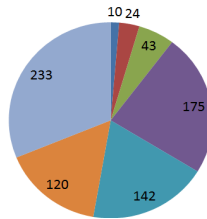
각 폭력유형에 대하여 ‘매우 심각하다’를 선택한 응답자 순으로 심각한 폭력의 순위를 나열해 보면 만15세 이하는 성폭력 67.4%, 학교폭력 57.3%, 주취폭력 50.4%, 갈취폭력 47.0%, 조직폭력 45.8%이고, 만18세 이하는 성폭력 66.9%, 학교폭력 47.7% 주취폭력 45.6%, 갈취폭력 35.6%, 조직폭력 30.9%로, 만19세 이상은 성폭력 55.8%, 주취폭력 41.6%, 학교폭력 37.7%, 조직폭력 32.5%, 갈취폭력 31.2%순이다. 만15세 이하와 만18세 이하는 학교폭력을 2번째로 매우 심각한 폭력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반면 만19세 이상은 주취폭력을 두 번째로 심각한 폭력이라고 답하였다. 조직폭력은 45.8%, 30.9%, 32.5%로 대체로 낮았으며, 만19세 이상의 경우 갈취폭력이 폭력유형 중 상대적으로 심각하지 않다고 대답하였다. 각 집단별 폭력유형에 대한 심각성에 대한 인식분포는 아래와 같다.

만15세 이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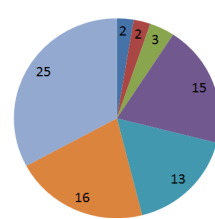
○ 조직폭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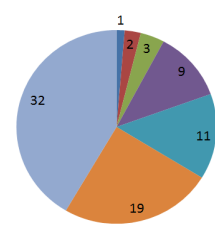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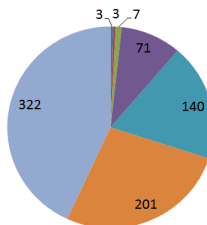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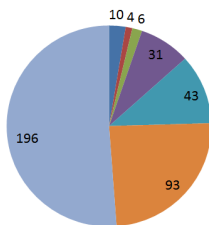
만18세 이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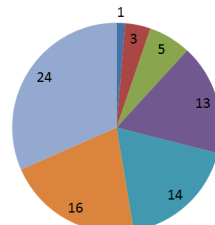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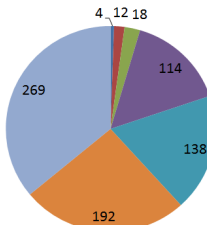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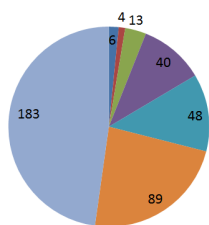
만19세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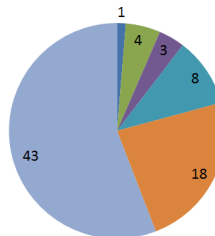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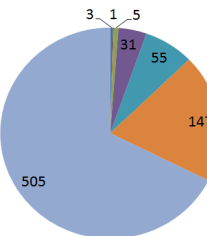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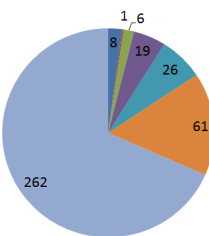
○ 주취폭력(술을 마시고 폭력행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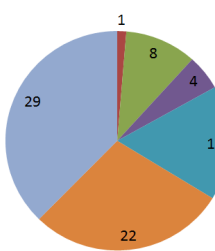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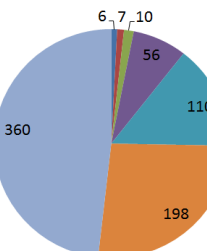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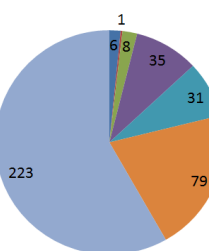
○ 갈취폭력(폭력을 써서 재산상 이익 취하기)



○ 성폭력



○ 학교폭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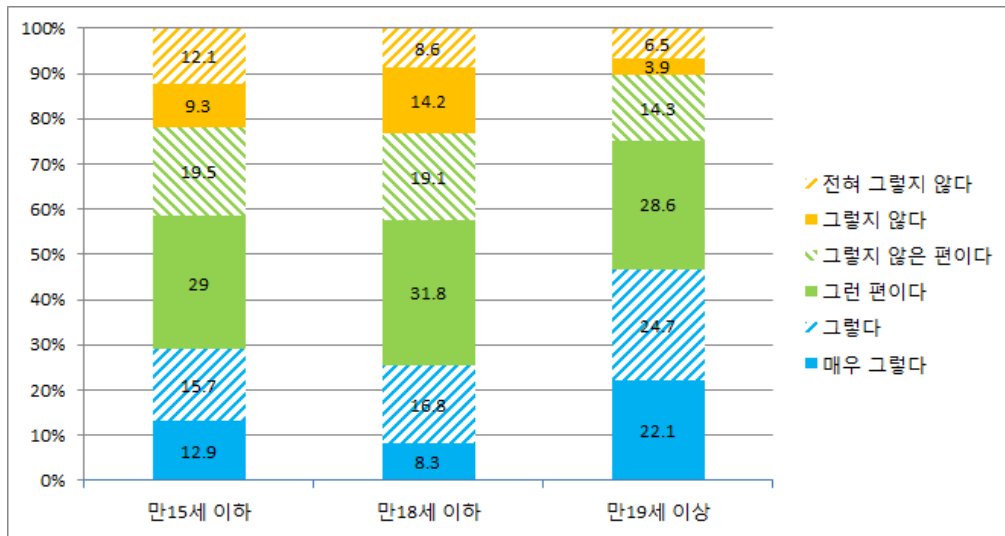
■ 전혀 심각하지 않다   
 ■ 심각하지 않다   
 ■ 심각하지 않은 편이다   
 ■ 보통이다   
 ■ 심각한 편이다   
 ■ 심각하다   
 ■ 매우 심각하다

# 5) 폭력행위의 원인과 처벌에 대한 의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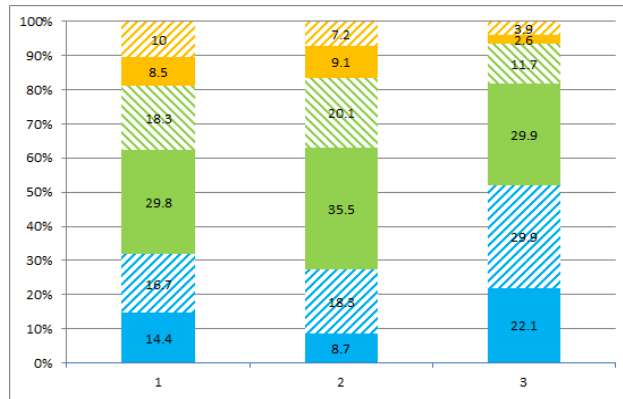
<표 14> 폭력행위의 원인과 처벌에 대한 의식 조사 결과

구분	만15세 이하		만18세 이하		만19세 이상		누적%
	빈도	%	빈도	%	빈도	%	
텔레비전, 방송, 영화 등의 선정적인 매체물은 성폭력을 조장한다							
매우 그렇다 1	50	12.9	63	8.3	17	22.1	10.6
그렇다 2	61	15.7	127	16.8	19	24.7	17.0
그런 편이다 3	113	29.0	240	31.8	22	28.6	30.7
그렇지 않은 편이다 4	76	19.5	144	19.1	11	14.3	18.9
그렇지 않다	36	9.3	107	14.2	3	3.9	12.0
전혀 그렇지 않다	47	12.1	65	8.6	5	6.5	9.6
무응답	6	1.5	8	1.1	0	0.0	1.1
성폭력을 조장하는 매체물은 법으로 적절하게 규제해야 한다							
매우 그렇다 1	138	35.5	215	28.5	29	37.7	31.3
그렇다 2	100	25.7	246	32.6	24	31.2	30.3
그런 편이다 3	83	21.3	175	23.2	13	16.9	22.2
그렇지 않은 편이다 4	30	7.7	51	6.8	6	7.8	7.1
그렇지 않다	11	2.8	31	4.1	4	5.2	3.8
전혀 그렇지 않다	20	5.1	29	3.8	1	1.3	4.1
무응답	7	1.8	8	1.1	0	0.0	1.2
텔레비전, 방송, 영화 등의 폭력적인 매체물은 폭력을 조장한다							
매우 그렇다 1	56	14.4	66	8.7	17	22.1	11.4
그렇다 2	65	16.7	138	18.3	23	29.9	18.5
그런 편이다 3	116	29.8	268	35.5	23	29.9	33.3
그렇지 않은 편이다 4	71	18.3	152	20.1	9	11.7	19.0
그렇지 않다	33	8.5	69	9.1	2	2.6	8.5
전혀 그렇지 않다	39	10.0	54	7.2	3	3.9	7.9
무응답	9	2.3	8	1.1	0	0.0	1.4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경찰이 학교에 상주하는 것이 필요하다							
매우 그렇다 1	109	28.0	122	16.2	13	16.9	20.0
그렇다 2	80	20.6	181	24.0	8	10.4	22.0
그런 편이다 3	105	27.0	225	29.8	16	20.8	28.3
그렇지 않은 편이다 4	42	10.8	132	17.5	21	27.3	16.0
그렇지 않다	23	5.9	57	7.5	9	11.7	7.3
전혀 그렇지 않다	24	6.2	30	4.0	10	13.0	5.2
무응답	6	1.5	8	1.1	0	0.0	1.1
지하철에서 이성의 신체를 만지는 행위는 성폭력으로 처벌받아야 한다							
매우 그렇다 1	263	67.6	444	58.8	42	54.5	61.3
그렇다 2	62	15.9	177	23.4	28	36.4	21.9
그런 편이다 3	40	10.3	97	12.8	4	5.2	11.5
그렇지 않은 편이다 4	8	2.1	14	1.9	3	3.9	2.0
그렇지 않다	4	1.0	4	0.5	0	0.0	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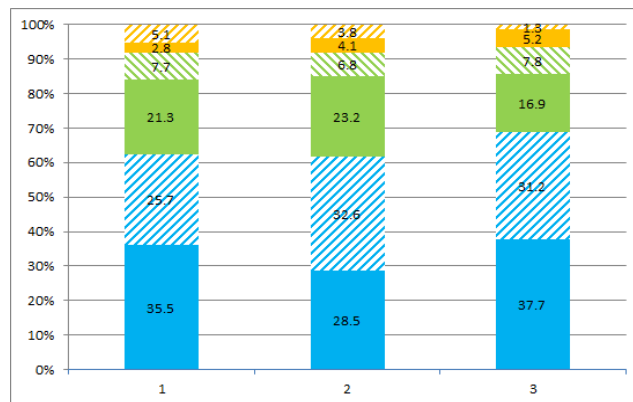
전혀 그렇지 않다	6	1.5	11	1.5	0	0.0	1.4
무응답	6	1.5	8	1.1	0	0.0	1.1
<b>다른 아이의 엉덩이를 만지는 행위는 성폭력으로 처벌받아야 한다</b>							
매우 그렇다 1	188	48.3	231	30.6	27	35.1	36.5
그렇다 2	89	22.9	190	25.2	19	24.7	24.4
그런 편이다 3	71	18.3	234	31.0	25	32.5	27.0
그렇지 않은 편이다 4	20	5.1	66	8.7	4	5.2	7.4
그렇지 않다	8	2.1	12	1.6	2	2.6	1.8
전혀 그렇지 않다	7	1.8	14	1.9	0	0.0	1.7
무응답	6	1.5	8	1.1	0	0.0	1.1
<b>부부간에 상대가 원치 않는 성행위를 하는 것은 성폭력으로 처벌받아야 한다</b>							
매우 그렇다 1	170	43.7	254	33.6	23	29.9	36.6
그렇다 2	96	24.7	218	28.9	22	28.6	27.5
그런 편이다 3	80	20.6	193	25.6	21	27.3	24.1
그렇지 않은 편이다 4	23	5.9	57	7.5	10	13.0	7.4
그렇지 않다	3	0.8	10	1.3	1	1.3	1.1
전혀 그렇지 않다	11	2.8	15	2.0	0	0.0	2.1
무응답	6	1.5	8	1.1	0	0.0	1.1



<그림 22> 텔레비전, 방송, 영화 등의 선정적인 매체물은 성폭력을 조장  
(그림 23~28, \*1: 만15세 이하 \*2: 만18세 이하 \*3: 만19세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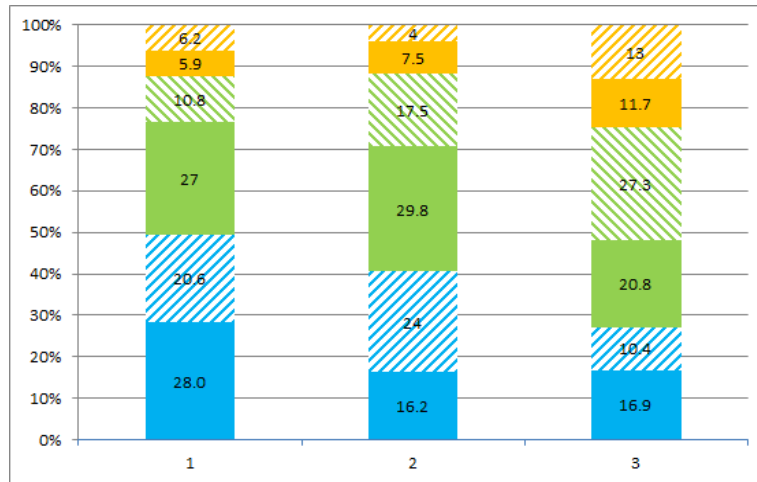


<그림 23> 텔레비전 등의 선정적인 매체물은 폭력을 조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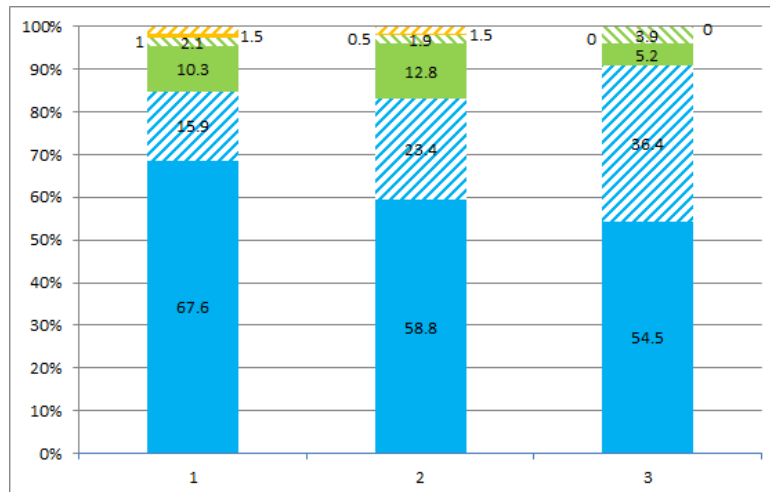
<그림 24> 성폭력을 조장하는 매체물은 적절히 규제

만15세 이하 57.6%, 만18세 이하 56.9%, 만19세 이상 75.4%가 매체물에 의해 성폭력이 조장된다고 대답하였으며, 만15세 이하 60.9%, 만18세 이하 62.5%, 만19세 이상 81.5%는 성폭력을 조장하는 매체에 대한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답하였다. 텔레비전 등이 폭력을 조장하느냐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만15세 이하 82.5%, 만18세 이하 84.3%, 만19세 이상 85.8% 등 모든 집단에서 80%이상이 조장한다고 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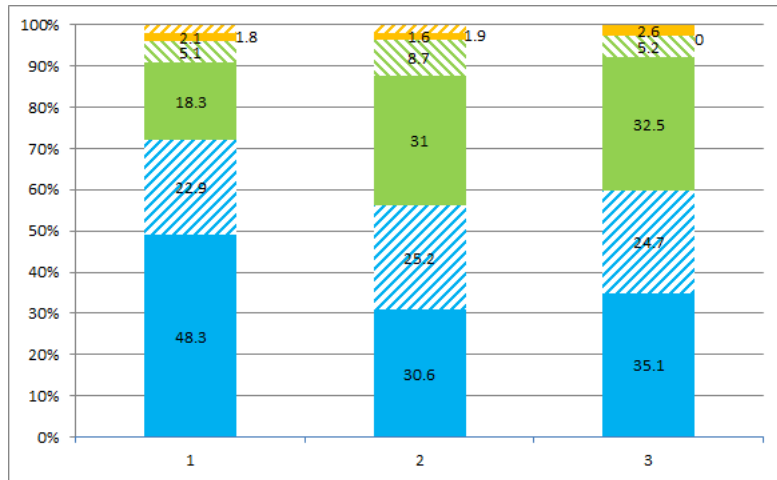


<그림 25> 학교폭력 예방 위해 경찰이 학교에 상주하는 것이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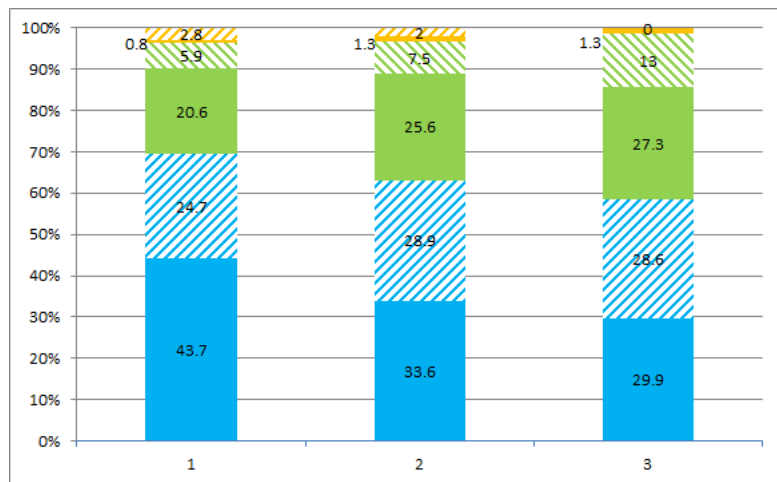
만15세 이하 75.6%, 만18세 이하 70.0%, 만19세 이상 48.1%가 경찰이 학교에 상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답하였다.



<그림 26> 지하철에서 이성의 신체를 만지는 행위는 성폭력으로 처벌



<그림 27> 다른 아이의 엉덩이를 만지는 행위는 성폭력으로 처벌



<그림 28> 부모간에 원치 않는 성행위를 하는 것은 성폭력으로 처벌

지하철에서 이성의 신체를 만지는 행위는 성폭력으로 처벌받아야 한다는 문항에 대하여 만15세 이하 93.8%, 만18세 이하 95.0%, 만19세 이상 96.1%로 평균 95.0% 그렇다고 답하였다. 다른 아이의 엉덩이를 만지는 행위에 대해서는 만15세 이하 89.5%, 만18세 이하 86.8%, 만19세 이상 92.3%로 평균 88.0%가 그렇다고 답하였다. 마지막으로 부부간 원치 않는 성행위에 대해서는 만15세 이하 89.0%, 만18세 이하 88.1%, 만19세 이상 85.8%(세 집단 중 최저)로 평균 87.6%가 그렇다고 답하였다. 성인으로 인식되는 다른 사람, 아이, 부부 순으로 신체접촉행위의 강도와는 무관하게 처벌받아야 한다는 대답

이 낮아졌다.

## 6) 폭력에 대한 허용도

폭력에 대한 허용도는 부부 사이, 정당방위, 전쟁, 상하질서 유지(학교선후배 등), 과잉 방어, 공권력 남용, 부모 자녀사이에서 발생하는 폭력의 모습을 2가지씩 제시하고 각 문항에 대한 생각을 숫자로 표시하도록 하였다. 선택지는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1), ‘그래서는 안 된다’(2), ‘그래서는 안 될 것 같다’(3), ‘그럴 수도 있다’(4), ‘그래도 된다’(5), ‘당연한 일이다’(6)로 구성되었다. 같은 종류의 문항 2개의 평균값을 구한 후 다시 전체 평균값을 구하는 방식으로 정리하였다.(‘범인의 검거를 위해 경찰이 위협사격을 하다 범인에 상해를 입혔다’는 문항에서 ‘2’를 선택하고, ‘교도소 내에서 과도한 교도 행위가 있었다’는 문항에서 ‘1’을 선택하였다면  $(2+1)/2=1.5$ 로 평균값 1.5를 구하고 다시 전체 응답자의 평균값의 평균을 구함.)

<표 15> 폭력에 대한 허용도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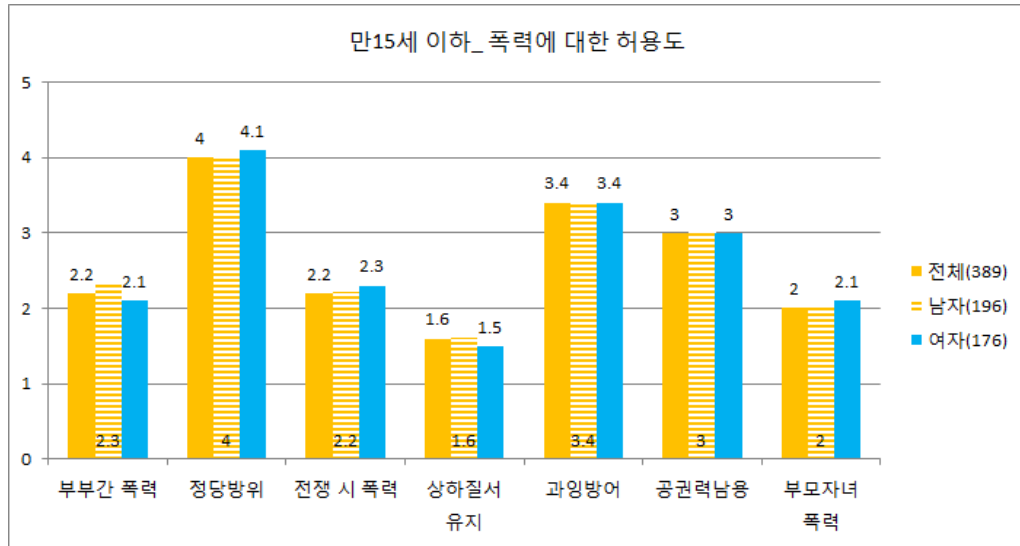
		부부간 폭력	정당방위	전쟁 시 폭력	상하질서 유지	과잉방어	공권력남용	부모자녀 폭력
만15세 이하	전체 (389)	2.2	4.0	2.2	1.6	3.4	3.0	2.0
	남자 (196)	2.3	4.0	2.2	1.6	3.4	3.0	2.0
	여자 (176)	2.1	4.1	2.3	1.5	3.4	3.0	2.1
만18세 이하	전체 (750)	2.5	4.7	2.8	1.6	3.8	3.7	2.4
	남자 (193)	2.8	4.8	3.1	1.8	3.9	3.8	2.5
	여자 (545)	2.4	4.7	2.7	1.5	3.8	3.7	2.3
만19세 이상	전체 (77)	2.0	4.4	2.5	1.4	2.8	2.8	1.9
	남자 (26)	2.4	4.6	2.8	1.6	2.8	3.0	2.2
	여자 (545)	1.9	4.4	2.3	1.3	2.9	2.8	1.7

모든 집단에서 가장 허용도가 높은 것은 정당방위에 해당하는 폭력이었고, 가장 낮은 것은 대학교 선후배, 학교 선도부원의 위반학생 구타 등 상하질서 유지를 위하여 하는 폭력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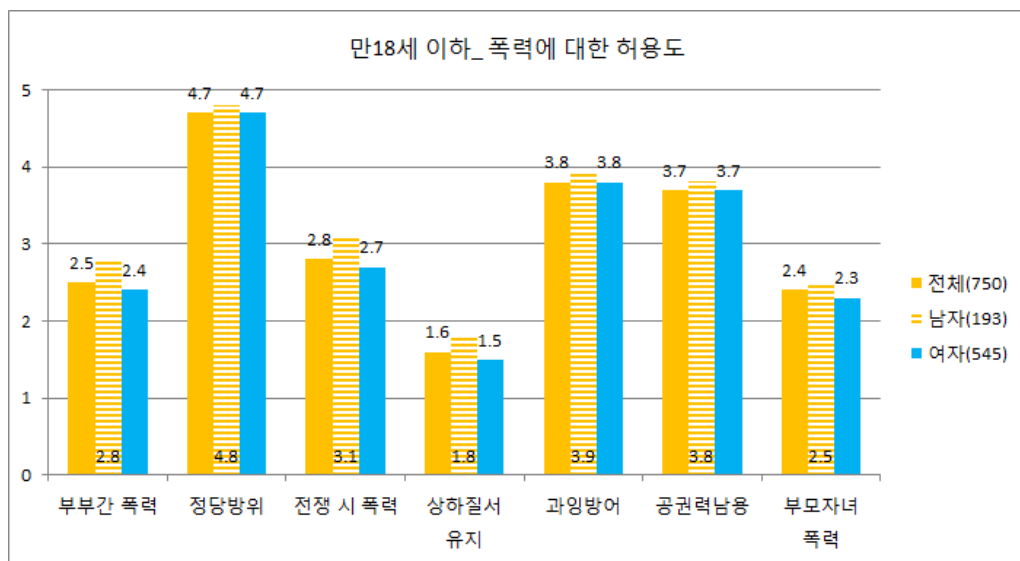
만18세 이하 집단의 경우 모든 상황에서 만15세 이하, 만19세 이상 집단보다 폭력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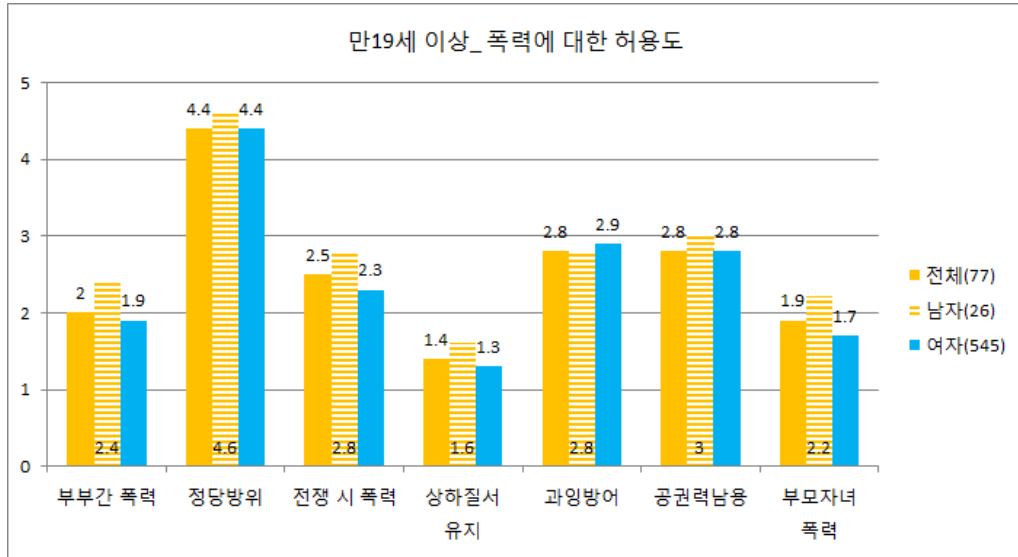
대한 허용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당방위로 인정되는 폭력과 전쟁 중에 일어나는 폭력에 대해서는 만19세 이상이 만15세 이하보다 높은 허용도를 보였고, 그 외의 문항에서는 만15세 이하가 만19세 이상보다 높은 허용도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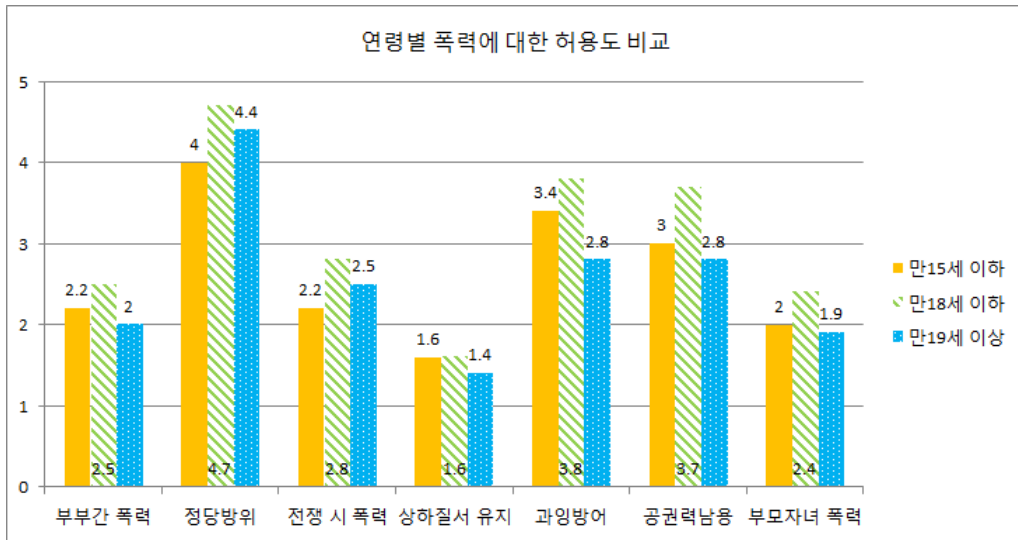
<그림 29> 만15세 이하 상황별 폭력허용도(최대 6점\_폭력은 당연하다/1점\_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



<그림 30> 만18세 이하 상황별 폭력허용도(최대 6점\_폭력은 당연하다/1점\_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



<그림 31> 만19세 이상 상황별 폭력허용도(최대 6점\_폭력은 당연하다/1점\_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



<그림 32> 연령별 폭력에 대한 허용도 비교(최대 6점\_폭력은 당연하다/1점\_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

## 7) 폭력의 필요성

<표 16> 상황별 폭력에 대한 필요성 인식 정도

구분	만15세 이하		만18세 이하		만19세 이상		누적%
	빈도	%	빈도	%	빈도	%	
사소한 일에 있어서는 법적인 해결보다 폭력이 더 효과적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154	39.6	170	22.5	29	37.7	28.9
그렇지 않다 2	96	24.7	195	25.8	17	22.1	25.2
그렇지 않은 편이다 3	62	15.9	174	23.0	19	24.7	20.9
그런 편이다 4	53	13.6	163	21.6	10	13.0	18.5
그렇다 5	9	2.3	38	5.0	2	2.6	4.0
매우 그렇다 6	7	1.8	9	1.2	0	0.0	1.3
말이나 법으로 해결 안 되는 일은 폭력으로 해결되는 경우가 많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150	38.6	121	16.0	19	24.7	23.8
그렇지 않다 2	85	21.9	160	21.2	15	19.5	21.3
그렇지 않은 편이다 3	55	14.1	149	19.7	20	26.0	18.3
그런 편이다 4	83	21.3	243	32.2	17	22.1	28.1
그렇다 5	28	7.2	62	8.2	5	6.5	7.8
매우 그렇다 6	9	2.3	14	1.9	1	1.3	2.0
옳지 않은 문제를 합법적으로 고칠 수 없는 경우에는 폭력을 사용해서라도 고쳐야 한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150	38.6	148	19.6	33	42.9	27.1
그렇지 않다 2	95	24.4	181	24.0	22	28.6	24.4
그렇지 않은 편이다 3	63	16.2	191	25.3	13	16.9	21.9
그런 편이다 4	47	12.1	168	22.3	8	10.4	18.3
그렇다 5	18	4.9	46	6.1	1	1.3	5.3
매우 그렇다 6	7	1.8	15	2.0	0	0.0	1.8
폭력에는 폭력으로 대항해서 싸워야만 한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163	41.9	161	21.3	33	42.9	29.2
그렇지 않다 2	97	24.9	222	29.4	18	23.4	27.6
그렇지 않은 편이다 3	63	16.2	209	27.7	18	23.4	23.8
그런 편이다 4	42	10.8	108	14.3	7	9.1	12.9
그렇다 5	10	2.6	37	4.9	1	1.3	3.9
매우 그렇다 6	6	1.5	12	1.6	0	0.0	1.5
사회발전을 위해서 폭력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156	40.1	164	21.7	34	44.2	29.0

그렇지 않다 2	84	21.6	178	23.6	24	31.2	23.4
그렇지 않은 편이다 3	71	18.3	176	23.3	13	16.9	21.3
그런 편이다 4	52	13.4	185	24.5	4	5.2	19.7
그렇다 5	14	3.6	36	4.8	2	2.6	4.3
매우 그렇다 6	4	1.0	9	1.2	0	0.0	1.1
필요한 경우에는 교사의 심한 체벌도 허용되어야 한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183	47.0	202	26.8	33	42.9	34.2
그렇지 않다 2	79	20.3	223	29.5	25	32.5	26.8
그렇지 않은 편이다 3	66	17.0	167	22.1	16	16.9	20.4
그런 편이다 4	39	10.0	112	14.8	5	6.5	12.8
그렇다 5	7	1.8	38	5.0	1	1.3	3.8
매우 그렇다 6	7	1.8	9	1.2	0	0.0	1.3
요즘 부모들은 자식들을 때려 키우지 않아 아이들의 버릇이 없어지는 것 같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131	33.7	145	19.2	26	33.8	24.7
그렇지 않다 2	89	22.9	160	21.2	24	31.2	22.
그렇지 않은 편이다 3	69	17.7	153	20.3	13	16.9	19.2
그런 편이다 4	62	15.9	190	25.2	8	10.4	21.3
그렇다 5	17	4.4	67	8.9	4	5.2	7.2
매우 그렇다 6	13	3.3	33	4.4	2	2.6	3.9
학교에서 폭력은 어느 정도 허용될 수 있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187	48.1	240	31.8	39	50.6	38.2
그렇지 않다 2	84	21.6	216	28.6	15	19.5	25.8
그렇지 않은 편이다 3	55	14.1	165	21.9	17	22.1	19.4
그런 편이다 4	44	11.3	102	13.5	6	7.8	12.4
그렇다 5	8	2.1	17	2.3	0	0.0	2.0
매우 그렇다 6	3	0.8	8	1.1	0	0.0	0.9

※ 선택 항목 중 1~3은 부정, 4~6은 긍정으로 합산하여 각 집단의 폭력에 대한 필요성 인식정도를 비교하면 아래와 같음.



대체로 모든 문항에서 폭력이 필요하다는 대답이 가장 많은 집단은 만18세 이하 집단으로 나타났다. 말이나 법으로 해결이 안 되는 문제의 경우 폭력이 적절한 해결수단이 될 수 있다는 문항과 자녀교육을 위하여 부모의 폭력이 필요하다는 문항은 그 외 6개 문항보다 비교적 긍정적인 답변이 많았으나, 교사의 체벌과 학교 내 폭력에 대하여서는 세 집단 모두 다른 6개 문항과 비교하여 40% 가까이 긍정적인 답변이 적었다.

### 3. 자존감과 그 밖의 폭력 경험, 허용도, 필요성 등에 대한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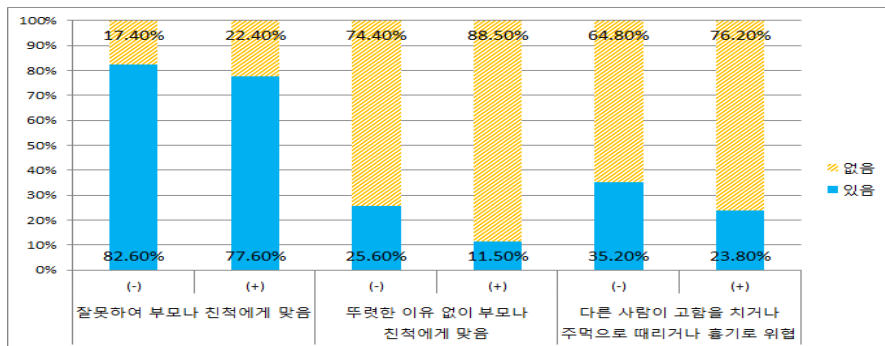
- 전체 응답자 중 자존감 척도에서 ‘-’ 응답자 219명, ‘+’ 응답자 917명의 문항별 설문 결과 정리

#### 1) 폭행을 당했거나 폭행을 한 경험

##### (1) 부모(친척) 또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경험 비교

<표 17> 부모나 친척, 다른 사람으로부터 폭력을 당한 경험

구 분	잘못하여 부모나 친척에게 맞음		뚜렷한 이유 없이 부모나 친척에게 맞음		다른 사람이 고함을 치거나 주먹으로 때리거나 흉기로 위협	
	있음	없음	있음	없음	있음	없음
‘-’(-15~-1), 219명	181 82.6%	38 17.4%	56 25.6%	163 74.4%	77 35.2%	142 64.8%
‘+’(+1~+15), 917명	712 77.6%	205 22.4%	105 11.5%	812 88.5%	218 23.8%	699 7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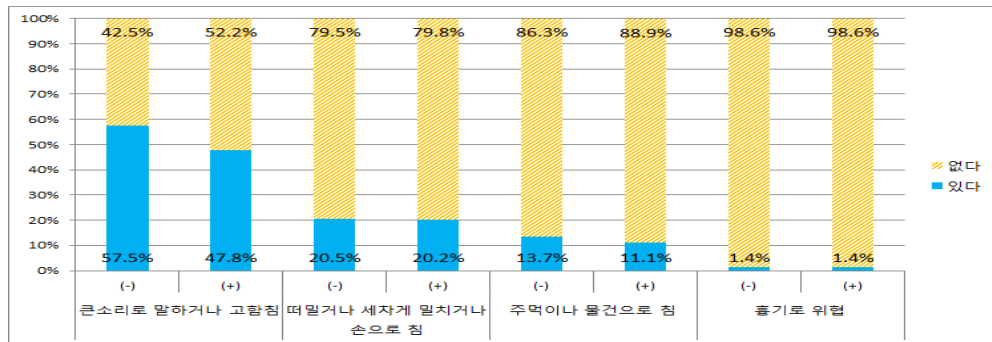


<그림 33> 표-17 그래프(%)

(2) 다른 사람을 폭행한 경험

<표 18> 다른 사람을 폭행한 경험

구 분	큰소리로 말하거나 고함침		떠밀거나 세차게 밀치거나 손으로 침		주먹이나 물건으로 침		흉기로 위협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15~-1), 219명	126 57.5%	93 42.5%	45 20.5%	174 79.5%	30 13.7%	189 86.3%	3 1.4%	216 98.6%
‘+’(+1~+15), 917명	438 47.8%	479 52.2%	185 20.2%	732 79.8%	102 11.1%	815 88.9%	2 0.2%	915 99.8%



<그림 34> 표-18 그래프(%)

2) 폭행에 대한 인식 차이

(1) 부부사이, 부모 자녀사이 폭력의 필요성 인식 정도

<표 19>부부사이, 부모 자녀사이 폭력의 필요성

구 분	부부가 서로 치거나 손으로 때림		부모가 자녀를 구타하거나 손으로 때림	
	필요	불필요	필요	불필요
‘-’(합한 값이 -15~-1), 219명	4 1.8%	194 88.6%	41 18.7%	126 57.5%
‘+’(합한 값이 +1~+15), 917명	11 1.2%	846 92.3%	127 13.8%	628 68.5%

※ 부모로부터 맞은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자녀교육에 있어서의 폭력사용

		요즘 부모들은 자녀를 때려 키우지 않아 아이들의 버릇이 없다(매우 그렇다)	
잘못하여 부모나 친척에게 맞은 경험 있음	667명	233	34.9%
뚜렷한 이유 없이 부모나 친 척에게 맞은 경험 있음	96명	38	39.6%

## (2) 폭력유형에 대한 심각성 인식 정도

&lt;표 20&gt; 폭력유형에 대한 심각성

구 분	조직폭력	주취폭력	갈취폭력	성폭력	학교폭력
‘-’(-15~-1), 219명	145	192	173	202	<b>197</b>
	66.2%	87.7%	79.0%	92.2%	<b>90.0%</b>
‘+’(+1~+15), 917명	<b>637</b>	786	723	840	<b>790</b>
	<b>69.5%</b>	85.7%	78.8%	91.6%	<b>86.2%</b>

## (3) 상황별 폭력행위의 필요성

&lt;표 21&gt; 상황별 폭력행위의 필요성

구 분	‘-’(-15~-1), 219명		‘+’(+1~+15), 917명	
사소한 일에 있어서는 법적인 해결보다 폭력이 더 효과적인 경우가 많다	36	<b>16.4%</b>	146	15.9%
말이나 법으로 해결 안 되는 일이 폭력으로 해결되는 경우가 많다	60	<b>27.4%</b>	222	24.2%
옳지 않은 문제를 합법적으로 고칠 수 없는 경우에는 폭력을 사용해서라도 고쳐야 한다	37	16.9%	161	<b>17.6%</b>
폭력에는 폭력으로 대항해서 싸워야 한다	30	<b>13.7%</b>	115	12.5%
사회발전을 위해서 폭력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45	<b>20.5%</b>	162	17.7%
필요한 경우에는 교사의 심한 체벌도 허용되어야 한다	29	<b>13.2%</b>	111	12.1%
요즘 부모들은 자식들을 때려 키우지 않아 아이들의 버릇이 없어지는 것 같다	54	<b>24.7%</b>	215	23.4%
학교에서 폭력은 어느 정도 허용될 수 있다	18	8.2%	97	<b>10.6%</b>



(4) 폭력에 대한 허용도(최대 6점, 폭력은 당연한 일이다/1점: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

<표 22> 폭력에 대한 허용도

구 분	부부간 폭력	장당방위	전쟁 시 폭력	상하질서 유지	과잉방어	공권력 납용	부모자녀 폭력	평 균
‘-’(-15~1), 219명	2.5	4.7	2.6	1.6	3.7	3.6	2.3	2.9
‘+’(+1~+15), 917명	2.3	4.4	2.6	1.5	3.6	3.4	2.2	2.8
전체 응답자 평균	2.3	4.5	2.6	1.6	3.6	3.4	2.2	2.8

### III. 나가며

위 설문결과에서 주목해야할 몇 가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그 첫 번째는 청소년 스스로가 부모 등 보호자의 폭력에 대하여 다른 폭력보다 상대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은 가족 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모든 기간 동안 심어진 가치관으로써 폭력의 광범위함과 폭력에 대한 우리 사회의 무딘 감수성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생각한다. 학교폭력의 문제를 가정의 책임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가정은 가족 구성원 그 자체만으로 채워지는 공간이 아니며, 다양한 간접경험(매체)과 외부의 보육, 교육과정과도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결과적으로 처음에서 밝혔듯이 폭력의 문제를 현 시점, 특정 공간의 상황 또는 문제로만 인식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다.

두 번째로 의외의 결과라고 생각되는 것은 폭력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한 항목에서 성폭력, 학교폭력, 주취폭력, 갈취폭력, 조직폭력 중 조직폭력이 심각하다고 대답한 응답자수가 가장 적다는 것이다. 위 5개의 폭력 중 심각하다고 대답한 응답자수가 모든 집단에서 76%를 넘지 못한 것은 조직폭력뿐이다. 대체로 그 외 모든 폭력은 80%이상이다. 물론 이런 결과는 설문에 참가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폭력(성희롱 포함), 학교폭력, 주취폭력 등과 달리 조직폭력의 경험이 없기 때문일 수도 있다. 하지만 직접경험하지 못한 폭력이 다른 유형의 폭력보다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쩌면 학습된 인식일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한다. 조직폭력에 대하여 간접경험을 제공하는 다수의 매체에서는 조직폭력을 어떻게 보여주고 있는가? 표현의 자유, 예술과 학문의 자유를 인

정한다고 하더라도 경계를 명확히 하고, 폭력에 대한 친절하고 정확한 추가 설명이 덧붙여질 필요가 있어 보인다.

세 번째는 스스로가 평가하는 본인의 자존감의 크기와 폭력행위에 대한 허용도, 필요성 등에 대한 결과이다. 물론 설문에서 우리는 개인의 자존감의 크기와 폭력행위에 대한 허용도, 필요성에 대한 인식 등이 반비례할 것이라 예상했다. 하지만 설문의 결과는 우리의 기대만큼 정반비례의 모습을 보이지는 않았다. 과연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원인은 존엄에 대한 인식의 차이라고 생각한다. 근본적으로 존엄하다는 것이 담고 있는 의미에 대한 서로 다른 해석과 ‘나’의 존엄과 ‘타인’의 존엄을 다르게 생각하는 것, 심지어는 타인의 존엄에 대한 무관심 그리고 앞서 존엄에 대한 다른 해석이 낳는 존엄성에 대한 평가방식의 차이가 이런 결과를 가져왔다고 생각한다. 단적인 예로 문제행동을 하거나(학생의 경우) 성적이 나쁘면 존엄하지 않은 사람으로 인식되는 문화, 이는 일부 인권교육으로 포장된 적절하지 않은 인성교육과 경쟁교육의 결과이다. 인권관점의 가치중립인 사람의 존엄, 그 사람과 사람, 사람과 자연의 공존을 위한 인권을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성인(聖人) 또는 군자(君子) 등 시대에 따라서 공간에 따라서 언제든 그 행동의 모습이 달라질 수 있고 의도에 따라 다르게 인식될 수 있는 본받을 만한 사람만의 존엄과 인권을 교육하는 것, 그러면서도 경쟁사회에서 늘 이기는 것이 미덕이라고 가르치는 우리 교육이 인권, 사람의 존엄을 위한 비폭력, 평화의 가치가 우리 삶에 자리 잡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

물론 위 세 가지 결과에 대하여 여러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다만 이 결과에 대한 여러 사람의 의문이 폭력과 그 폭력에 대한 우리의 태도에 대한 고민을 깊고 넓게 만드는데 조금이나마 기여하기를 바란다.

끝으로 폭력에 대한 인식조사를 진행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것은 우리가 특별히 문제라고 인식하는 특정 영역에서의 폭력에 대하여서는 여러 연구들이 진행되었으나 폭력 자체에 대한 의식조사가 진행된 적은 거의 없다는 것이다. 공존을 위한 가치, 인권을 위한 비폭력, 평화는 삶의 철학이다. 철학은 단편적인 지식의 전달만으로는 삶에 반영될 수 없다. 인간의 존엄, 비폭력, 평화라는 가치에 대한 꾸준한 관찰과 학습, 실천을 통하여 공존의 철학이 우리 삶에서 살아 숨 쉴 수 있기를 기대한다.